

주요 조선어사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강점기 한의학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 ²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副教授
尹銀卿¹ · 金鍾鉉^{2*}

A Look into Korean Medicine During Japanese Occupation Based on Major Joseoneo Dictionaries

Yoon Eunkyung¹ · Kim Jong-hyun^{2*}

¹Lecture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o examine changes in Korean Medicine during Japanese occupation through major Joseoneo dictionaries.

Methods : Based on the *Keun Sajeon*, published in 1957 b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the most recently published among the major dictionaries under Japanese occupation, key Korean Medical terminology in the *Joseoneo Sajeon*, published in 1920 by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and the *Joseoneo Sajeon*, published in 1938 by Mun Seyeong were analyzed. The differences among the dictiona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situation which Korean Medicine was in.

Results : 1) There was a lack of consistency among Korean Medical terminology. 2) Changes in medical policies and legislation were reflected in the Korean Medical terminology without much delay. 3) Korean Medicine was distinguished as a separate category in the *Keun Sajeon* for the first time. 4) With the exception of Korean Medicine specific terminology, most were explained using 'modern' concepts and ontology.

Conclusions : Modernization lead by the Japanese splintered many areas of Joseon society, and Korean Medicine was no exception. This transition period as reflected in the terminology within the Joseoneo dictionaries show that Korean Medicine went through a process of regulation by changes in medical policies and legislation, while new, modern studies brought in by the Japanese started replacing language and ontology of pre-occupation Joseon. A look into Korean Medicine during Japanese occupation through Joseoneo dictionaries allows us to examine the conne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the more broader historical context in which it was situated.

Key words : Japanese occupation, dictionary, Korean Medicine, Joseoneo Sajeon, Keun Sajeon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8724, E-mail : ultracoke82@gmail.com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uly 27, 2023), Revised(July 31, 2023), Accepted(July 31, 2023)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사전의 역사는 단순한 문헌사(文獻史)가 아니라, 인류 실천의 역사이다.¹⁾ 일상적인 어휘에서부터 전문어까지 다양한 말이 실려 있는 사전은 얼핏 보면 고정불변한 개념어나 기호로서의 언어의 집합체인 듯하다. 그러나 개념은 언제나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전은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사회를 반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실린 어휘들은 죽은 말이 되어 사전의 의미 자체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사전에는 일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어휘가 실려 있다. 사전의 종류에 따라 풀이의 깊이나 전문성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 전문어 사전이 아닌 일반 사전의 경우 전문어는 당대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풀이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국어사전에서 의학 전문어를 검색했을 때 실제 임상에서 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정보가 실려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준의 설명이 실려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역으로 사전에 실린 한의학 전문어를 통해 특정 시기에 편찬된 사전의 한의학에 관한 인식, 당시 한의학의 사회적 위치나 한의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규정했는지 등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서양 학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한의학과 같은 동아시아의 지식과 학문이 근대화의 요구에 맞닥뜨려 큰 변화를 겪은 시기이다. 근대화는 서구의 지식체계가 순순히 흘러들어온 과정이 아니라 기존 지식 체계에 균열을 내는 과정이었기에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모두 각각 온전히 존재하거나 원활하게 융합되지 못한 채 대체로 기존의 것이 파편화되거나 잠식당했다. 기존 지식 체계로서의 한의학은 그것이 마주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저항과 적응을 하면서 어렵게 그 명맥을 이어갔고, 근대화가 가져온 충격의 여파는 한의학의 거의 모든 측면-가장 기본적인 어휘까지-에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에 실린 한의학 전문어와 풀이에서 이 같은 시대의 영향을 읽어냄으로써, 사전에 실린 어휘가 진공 상태의 지식이 아니라 시대를 적극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한의학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한의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계 전반의 지형 변화와, 이를 기점으로 이원화된 채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1. 선행 연구

기존에도 비전문 문헌을 통해 의학 분야의 전문어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었다. 박훈평²⁾은 조선시대 문헌에 실린 의약 용어의 서지학적 고찰을 통해 문헌별 인용 관계를 파악했다. 이 연구는 문헌에 따른 한의학 용어의 전승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사회적 측면은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홍관³⁾은 50년의 시차를 둔 의학 잡지에 실린 질병명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한의학 용어가 아닌 서양의학 용어를 다루었는데, 용어의 변화를 야기하는 데에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의료 용어가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 미군정기 등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의학 잡지와 같은 전문 문헌에 실린 전문 용어가 보다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위치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본 점에서 본 연구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나, 연구 대

1) 여기에서 '사전'은 Encyclopedia事典이 아니라 Dictionary辭典이다. 문자로 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 행위로써 '말의 모음'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onsidine은 사전학의 역사에 관해 "사전의 역사는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지속되고 어휘로서 재생산되는 문자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행위-사전을 만드는 이들과 사전을 사용하는 이들, 그리고 사전을 소유하지만 읽지는 않는 이들까지를 포괄하는-의 역사이다."라고 말했다.(John Considine. *Adventuring in Dictionaries: New Studies in the History of Lexicography*.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p.11.)

2) 박훈평. *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의약 어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재물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지. 33(2). 2020. pp.37-43.
3) 서홍관. *의학용어의 변화-조선의보(1934~6)와 대한의학협회지(1985)에 나타난 질병명을 중심으로*. 의사학. 2(1). 1993. pp.59-65.

상으로 삼은 문헌이 전문 의학 잡지라는 점에서 의학 분야 안에서의 미시 변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들 외에 한의학 관련 용어와 사회적 변화의 관련성을 사전과 같이 보편적인 성격의 문헌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우리말 사전 속 한의학 관련 용어의 변화를 당대 사회 변화와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편찬된 사전 가운데 총 세 개의 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語辭典』⁴⁾(이후 『(총)조선어사전』), 문세영이 만든 『朝鮮語辭典』⁵⁾(이후 『(문)조선어사전』), 그리고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조선말 큰 사전』⁶⁾⁷⁾⁸⁾⁹⁾(이후 『큰사전』)이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편찬되었으며, 『(총)조선어사전』이 1920년에, 『(문)조선어사전』이 1938년에 발간되었고, 1947년 첫째 권이 발간된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출간되었다. 이 사전들은 모두 당시의 조선말 어휘를 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은 조선어사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사전들로서 당시의 우리말 어휘를 충실하게 모았다. 『(총)조선어사전』은 비록 일제의 주도로 편찬되었지만 내국인의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조선어 어휘를 대규모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이후에 편찬된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에서 『(총)조선어사전』의 풀이를 수용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편찬 의도는 달랐을지라도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이 사전들에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를 비롯해 각 지방의 고유 어휘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어까지 총망라되어 있으며, 한의학 관련 어휘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¹⁰⁾ 선정된 세 개의 사전 외에 『말모이』¹¹⁾ 또

한 우리말 사전 편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약 1,400여개의 표제어가 실린 첫 권에 해당하는 원고만이 발견되었고 최종적으로 출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¹¹⁾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사전에 나타난 한의학 용어를 서로 비교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상황과 겹쳐 봄으로써 역사의 거시 변화가 전문어의 미시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피고자 했다. 한의학 용어의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말 사전들의 편찬 배경과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최초로 한의학을 전문 분야로 구분한 『큰사전』을 기준으로 전문어 표기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연구 과정에서 살펴본 표제어는 사전에 실린 한의학 관련 용어의 일부로서, 한의학 이론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는 예시들이 사전의 한의학 용어 전체의 현황을 보여주기 보다는 편찬자들 및 대중의 인식을 대체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사전들에 수록된 표제어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먼저 의료제도에 관한 표제어들을 사전별로 비교함으로써 한의학이 포함된 의료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와 그것이 사전의 풀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한의학 관련 표제어들을 인체 구조, 생리, 병인·병기, 맥, 병증, 본초, 처방, 경락·침구, 의서의 9가지 방면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사전이 제시한 풀이의 내용과 그 변화에 주목하였고 어문학적인 고찰은 지양했다. 본문에 기재한 사전의 원문들은 가능한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옮겨 어휘의 품사와 전문어 표

4) 朝鮮總督府 編, 朝鮮語辭典, 京城, 朝鮮總督府, 1920.

5) 文世榮 著, 朝鮮語辭典, 京城, 博文書館, 1938.

6) 조선어학회, 조선 말 큰사전(1), 서울, 을유문화사, 1947.

7) 조선어학회, 조선 말 큰사전(2), 서울, 을유문화사, 1949.

8) 한글학회, 큰 사전(3), 서울, 을유문화사, 1950.

9) 한글학회, 큰 사전(4-6), 서울, 을유문화사, 1957.

10) 전문 분야로서 ‘한의’ 전문어가 표기된 사전은 『큰사전』 뿐이다. 이는 각 사전에서 설정한 ‘의학’ 분야의 범주와 관련 있는데, 본문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1) 대한제국 시기부터 선교사들에 의한 이종어사전이 여럿 편찬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안에서의 사전 간 전승을 살펴보는 것은 본고의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므로 배제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나온 이종어사전에도 당시의 어휘와 풀이가 실려 있으며, 한의학 전문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보다 포괄적인 시기를 대상으로 한의학 관련 전문어의 변천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후고를 기약한다.

기에 사용된 기호들은 일괄적으로 통일해 기록하였다.

3. 연구목적

일제강점기의 의료 지형의 변화는 그 영향력이 지속되어 현대의 이원화된 의료체제로 이어져왔으며, 그 안에서 유통되는 의료지식과 의료실천은 필연적으로 당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피는 일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한의학의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 중요하며, 특히 의료와 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내에서만 유통되는 문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보편적 인식을 담고 있는 우리말 사전들을 통해 전문 용어를 고찰함으로써 의료의 ‘일상성’을 상기하고, 전문 분야의 지식이 그것이 속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II. 조선어사전 편찬의 배경과 역사

우리말 사전의 편찬은 19C 말 외세의 유입과 그들의 필요에 의한 대역사전(對譯辭典)의 간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¹²⁾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조선인이 만든 조선어사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¹³⁾ 일제가 우리말을 탄압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지식인들로 이뤄진 연구회가 사전 편찬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흩어져 있는 어휘를 한데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까지 이어질 지난한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편찬 기간은 일제 강점과 해방, 한국전쟁이

라는 우리 근대사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집중된 때로, 사전 편찬 과정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는 옥살이와 고문을 견디지 못해 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우리말 사전에 대한 의지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당대의 어휘를 방대하게 수록한 사전이 남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으로는 『말모이』, 『(총)조선어사전』, 『(문)조선어사전』, 『큰사전』이 있다.

1. 『큰사전』의 편찬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언급되는 것으로는 1911년 주시경과 조선광문회에서 기획한 『말모이』,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해 조선인이 작업해 출간된 『(총)조선어사전』(1920), 그리고 문세영이 작업해 1938년에 출판된 『(문)조선어사전』이 있다. “우리말”로 엮은 ‘우리’의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말모이』는 민족적 자각에 의해 엮은 역사상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점에서 비록 미완성이지만 그 상징성이 높게 평가된다.¹⁴⁾ 1921년에 박승빈과 최남선이 중심이 되어 계명구락부를 조직하고 최남선의 주도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1929년에 들어 철자법의 불통일과 경비 부족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알려진다.¹⁵⁾ 『말모이』는 최종 출간되지 못했으나, 이때의 원고는 후일의 사전 편찬 작업에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이 『말모이』의 철학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¹⁶⁾

한편 조선총독부 주도로 1911년 4월부터 약 10년간의 편찬 기간을 거친 『(총)조선어사전』이 1920년에 발간되었다.¹⁷⁾ 이 사전에는 총 58,639개의 표

12) 이 시기 발간된 이중어 사전으로는 1874년 푸칠로에 의해 편찬된 『로한사전』, 1880년 파리외방선교회의 리델 신부에 의해 편찬된 『한불자전』을 비롯해 1891년 영국의 제임스 스콧이 일상어휘를 풀이한 『영한사전』 등이 있다. 이들은 국어와 관련된 ‘현대적인’ 사전으로 거론된다.(이병근,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1977. p.67.)

13) 허계영. 국어사전 편찬 연구사. 한국사전학. 13. 2009. p. 289.

14) 이병근.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1977. p.67.

15) 박용규.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2011. p.285.

16) 김한샘. 국어사전(말모이)의 탄생과 발전. 나라사랑. 128. 2019. p.72.

17) 『(총)조선어사전』이 비록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만들어져 최종적으로는 조선어 표제어에 대한 일본어 풀이의 형태만이 남았지만, 초기 원고는 내국인에 의해 국어사전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것을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볼 수 있다.(김민수.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 1983. p.2.)

제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어 표제어를 일본어로 풀이한 이중어사전의 형식이다.¹⁸⁾ 사전에 실린 어휘 중에 특정 분야로 분류되는 표제어에는 해당 분야의 부호를 표기함으로써 전문어임을 드러냈는데, 이 같은 전문어 표기는 이후에 출간된 『(문)조선어사전』과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에도 나타나며, 후대의 사전으로 갈수록 전문 분야의 종류가 늘어났다. 『(총)조선어사전』이 출간되기 직전, 일본어 표제어를 조선어로 풀이한 『(鮮譯)國語大辭典』이 후나오카 켄지(船岡獻治)에 의해 1919년에 발간되기도 했다. 이 사전은 일본어 어휘 약 63,000여 개를 조선어로 풀이했으며 당시까지 조선어로 역주한 일본어 사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총)조선어사전』과 『(선역)국어대사전』 모두 문세영이 자신의 사전 편찬에 참고했을 정도로 어휘가 방대하고 당시 기준으로 선진적인 사전이었으나¹⁹⁾ 『(선역)국어대사전』은 조선 어휘가 아닌 일본 어휘를 주해했다는 점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최초의 근대적 국어사전으로 평가받는 문세영²⁰⁾의 『(문)조선어사전』이 1938년에 발간되었다²¹⁾. 문세영은 사전의 서문에서 사전의 편찬 동기를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 배우기와 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말을 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글을 닦는데 가장 요긴한 곳집이 되는 사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 반만년의 역사가 있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로서 이 얼마나 섭섭한 일이며 또 중외(中外)에 대하여 이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어사전·지은이 말씀)²²⁾

『(문)조선어사전』이 발행된 이후, 각 지방의 학생들과 독자들이 숨겨진 말과 책에 누락된 어휘를 제보해 이를 바탕으로 1만 어휘가 추가된 증보판이 1940년 12월 10일에 발간되었다. 이후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수정증보판이 계속 유통되었으며 재판(再版)되거나 이름이 바뀌면서 계속 발간되었다.²³⁾ 『(문)조선어사전』에 대해 당시의 학계와 언론에서는 최초의 조선인에 의한 조선어사전이라고 일컬으며 크게 반겼다.²⁴⁾ 당시 조선어학 연구자이자 표준어 사정위원으로 활동한 방중현은 이 사전에 대해 “조선어를 조선어로서 주해하였고 조선인 개인의 힘으로 조선어대사전을 편찬하였으며 …… 아직까지 출판된 모든 사전 중에서 최신의 것이며 최대의 것이라고 하겠다.”²⁵⁾며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국어사적으로는 『(문)조선어사전』이 조선어 사전사상 처음으로 표제어와 풀이 모두 우리말로 적었다는 점과 어휘의 수가 『(총)조선어사전』의 58,639어를 능가하는 10만 어휘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것이 이후 『큰사전』이 나오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²⁶⁾ 『(문)조선어사전』에서는 어휘의 수가 늘어

18) 『(총)조선어사전』의 기획 의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애초에는 조선어 단일어사전과 조선어/일본어 이중어사전의 구실을 겸하도록 기획되었지만 최종 출판 시에 조선어 뜻풀이가 삭제되었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이중어사전으로 기획되었다는 의견이다. (안예리,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경위-‘조선사서원고’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0, 2017, pp.67-73.)

19) 박용규,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2011, p.285.

20) 문세영(文世榮, 1895~1952?)은 1916년 선진 학문을 배우러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대학 윤리교육과에 입학했다. 유학 당시 조선어사전을 구하는 동료의 요청에 사전을 모색해보았으나 모국어 사전이 없음을 알고 수치스럽게 여겨 우리말 사전의 편찬을 결심했다. 1921년 대학을 졸업한 뒤 귀국해서 1922년에서 1928년까지 모교인 배재고보와 근화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중에 사전 편찬을 위한 어휘 수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후 본격적인 사전 편찬을 위해 1928년 근화학교를 사직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편찬 작업에 몰두했으며, 이 무렵 한글학자 이극로를 만나 교류하며 사전 편찬에 더욱 매진했다.

21)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거친 뒤 훈민정음 반포 492주년인 되는 1938년 7월 10일 초판 1천부를 발행했으며, 1950년 여름에는 『우리말 사전』으로 개칭되었다.

22) 文世榮 著, 朝鮮語辭典, 京城, 博文書館, 1938, p.1.

23) 박용규,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2011, p.275.

24) “이제야 조선말로 주해한 조선말의 사전을 조선 사람의 손으로 처음 만들어 갖게 된 것이다. 뒤늦은 것이 부끄러우나 기쁨은 크지 않을 수 없다.”(동아일보, 1938년 7월 13일 사설, 「조선어사전의 출래」)

25) 방중현, 朝鮮語辭典의 年代記, 박문, 1, 1938, p.22.

26) 박용규,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2011, p.290.

난 만큼 전문어 표제어의 수와 분야의 종류도 늘어나, 『(총)조선어사전』에서 다섯 종에 불과하던 것이 18종이 되었다.

인제는 이 책이 다만 앞사람의 유산을 찾는 도음이 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의 이로운 연장이 되며, 또 그 창조된 문화재를 거두어 들여, 앞으로 자꾸 충실해 가는 보배로운 곳집이 되기를 바라 말지 아니한다. (조선말큰사전·머리말)²⁷⁾

문세영이 『(문)조선어사전』 편찬 작업에 매진하고 있을 무렵인 1921년 출범한 조선어연구회²⁸⁾도 사전 편찬을 준비 중이었으며, 특히 연구회 내에 편찬회를 조직해 사전 편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수집된 어휘는 크게 일반어, 전문어, 특수어(고어, 사투리, 은어 등)로 나누었으며, 일반어는 편찬원이 풀이하고, 전문어는 연희·보성 전문 및 기타 각 학계에 풀이를 위촉했으며, 특수어는 휴가에 귀향하는 각 중등학교 학생에게 방언을 수집하도록 하고 고서 수백 책에서 옛말을 찾는 식으로 정했다.²⁹⁾ 또한 『(총)조선어사전』을 비롯해 1897년 영국인 선교사 게일이 만든 『한영사전』의 어휘를 참고 및 수용했으며, 유사한 시기에 편찬을 준비 중이었으나 먼저 출간된 『(문)조선어사전』을 참고하기도 했다.³⁰⁾ 그 외에는 각종 신문·잡지·소설·시집 및 고전 언해·역사·지리·관제 기타 각 전문 방면의 문헌들에서 취했다.³¹⁾ 1942년

가을이 되자 어휘에 대한 초벌 풀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16만 가량의 표제어가 주해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나, 10월에 ‘조선어학회사건’³²⁾이 발발해 학회 활동이 중단되었다. 해방 이후인 1947년이 되어서야 『조선말큰사전』이라는 이름³³⁾으로 총 6권 가운데 첫째 권이 출간되었고, 이후 마지막 권이 나온 1957년 10월 9일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과 재정지원의 손실, ‘한글 간소화’ 정책 등의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사전 편찬과 출간 작업을 이어나갔다. 마침내 출간된 사전은 지금까지의 사전들 중 가장 많은 16만 개의 어휘를 수록하였고, 보다 세분화된 전문어 분류와 가로쓰기 형식³⁴⁾ 등 그간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이 사전이 민족 문화의 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집필진의 염원이 머리말에 남아있다.

2. 의학 관련 전문어의 세분화

앞서 언급했듯이 『큰사전』보다 먼저 출간되어 편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은 여러 분야의 전문 어휘를 싣고, 이들을 각 사전에서 정한 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표기했다. 먼저 『(총)조선어사전』에서는 전문어를 동물·식물·광물·의학·약학의 다섯 분야로 구분했으며, 대체로 과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문)조선어사전』에서는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게 어휘를 분류했는데, 문법·동물학·식물학·광물학·의학·약학·수학·물리학·화학·법학·철학·심리학·교육학·윤리학·논리학·경제학·천문학·지문학의 18종이다. 이 두 사전의 전문어 분류에 ‘한의’는 없으며, 한의학 관련 표제어의 다수가 ‘의학’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경우 해당 분류는 보다 넓은 범주의 ‘의학’ 분야

27) 조선어학회. 조선 말 큰사전(1). 서울. 을유문화사. 1947. p.2.

28) 조선어연구회는 이후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1949년에 한글 학회로 회명이 변경되었다.

29) 李允宰. 朝鮮語辭典 編纂은 어떻게 進行되는가?. 한글. 31. 1936. p.5

30) 조선어학회의 회원이면서 『큰사전』의 편찬에 직접 관여한 이강로가 증언한 바로는 “한글학회가 『큰사전』(1945~1957)을 만들 때 문세영 사전과 신무라(新村出) 사전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박용규.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2011. p.295.) 여기에서 ‘신무라(新村出) 사전은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였던 신무라 이즈루가 만든 사전을 일컫는다.

31)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한글학회50년사. 서울. 한글학회. 1971. p.267.

32)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자 단체로 지목되어 회원들이 구속되고 고문을 받은 사건을 일컫는다. 이때 사전 원고와 카드는 모두 증거물로 경찰에 의해 압수당한 뒤 행방을 알지 못하다가 1945년 가을 서울의 한 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33)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은 1권과 2권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이후 3권부터는 『큰사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34) 한글학회에서는 한글이 본래 훈민정음의 이론에서부터 가로쓰기에 알맞다고 보고 조선어학회의 초기시절부터 주시경을 필두로 가로 풀어쓰기를 주장했다.(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한글학회50년사. 서울. 한글학회. 1971. p.487)

임을 알 수 있다.

『큰사전』은 첫머리에 「범례(凡例)」를 두어 사전 편찬의 원칙을 밝혔다. 어휘 수집의 기준, 표제어 배열순서, 맞춤법, 발음 표기, 어원 표시, 품사 표기, 해석 방식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전문어 표시의 부호’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큰사전』은 총 49종³⁵⁾의 전문어를 표시했으며 ‘한의학(漢醫學)’을 전문 영역의 하나로 구분해 해당 표제어에 ‘(한의)’의 형태로 표기했다. 이처럼 한의학 전문어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큰사전』이 우리말 사전 중 최초이며, 기존의 사전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큰사전』의 전문어 49개 분야를 살펴보면, 이전 사전에 존재했던 전문 분야의 하위 항목이 별도의 분야로 독립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상위 개념인 ‘종교’ 분야가 있음에도 그것의 세부 항목인 ‘불교’, ‘예수교’, ‘천주교’, ‘천도교’, ‘대종교’가 별도의 분야로 분리되어 있는 식이다. ‘의학’과 ‘한의학’이 별도의 분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의학 분야를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두 사전에서는 한의학 전문어에 대한 별도의 표기 없이 ‘의학’이 한의학 어휘까지 포괄하고 있다면, 『큰사전』에서는 한의학 전문어로 인정한 어휘에 대해서는 서양의학과 구분되는 분류로서 ‘한의’로 표기한 것이다. 이 외에 ‘의학’으로 분류된 어휘는 앞선 두 사전에서와는 달리 협의의 의학, 즉 서양의학으로 분류되는 어휘이거나, 한의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들이었다.³⁶⁾

『(문)조선어사전』은 편찬 과정에서 『(총)조선어사전』의 영향을 받았고, 『큰사전』은 그에 앞서 간행된 두 사전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전 사전의 어휘

나 풀이가 뒤의 것에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각 사전의 편찬 기준에 따라 수정·보완되었다. 전문 분야의 종류와 각 분야의 범주, 그리고 속한 어휘의 개수 또한 사전마다 다르다(표1). 『큰사전』에 수록된 한의학 전문어는 총 1,750개로, 전체 표제어 약 16만개 가운데 1.07%에 해당한다. 이를 의료 관련 표제어들과 비교해보면, 의학(754개, 0.46%)과 약학(192개, 0.12%) 전문어를 합친 것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이다. 그보다 몇 년 앞서 발간된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과 비교할 때 『큰사전』의 전체 표제어의 수는 절반 이상 증가한 반면, 956개(1.01%)였던 의학 전문어와 500개(0.53%)였던 약학 전문어 수와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학, 약학 분야의 전문어의 다수가 한의학 전문어로 분류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1. 사전별 표제어 및 전문어의 수

사전명	표제어 수	전문어 종류	의학	약학	한의학
『조선어사전』 (조선총독부, 1920)	58,639 개	5종	825 (1.41%)	373 (0.64%)	없음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문세영, 1942) ³⁷⁾	약 95,000 개	18종	956 (1.01%)	500 (0.53%)	없음
『큰사전』 (1947-1957)	164,125 개	49종	754 (0.46%)	192 (0.12%)	1750 (1.07%)
『표준국어대사전』 (1999) ³⁸⁾	약 500,000 개	53종	10,501 (2.10%)	1487 (0.30%)	5077 (1.02%)

35) 철학·윤리·논리·심리·교육·법률·정치·경제·사회·역사·천문·지리·지명·물리·화학·동물·식물·광물·광산·수학·생리·생물·의학·한의학·약학·농업·공업·토목·건축·문학·어학·미술·회화·조각·음악·체육·군사·연구·인쇄·사람이름·책이름·종교·불교·예수교·천주교·천도교·대종교·민속·토속·옛말·이두·고제, 고속·일본식제도

36) 『큰사전』의 한의학 전문어가 모두 이전 사전에서 의학 전문어로 분류된 것은 아니었으며, 약학으로 구분되거나 전문어가 아닌 일반 명사로 구분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계지(桂枝)’는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에서 모두 약학 전문어로 분류되었으며, ‘사관(四關)’은 두 사전 모두에서 전문어로 분류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큰사전』은 이전의 사전들에 비해 전문어를 세분하고 표제어를 대폭 확충했다. 1,750개에 달하는 한의학 전문어의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라 짐작할

37) 황용주.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p.134.

38) 황용주.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p.134.

수 있는데, 한의학 전문어 검토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문가는 조헌영(趙憲泳, 1900-1988)이다. 조헌영은 1920년대 신간회의 주요 임원직들을 역임했고, 해방 후에는 제헌국회 의원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보였으나, 조선어학회가 맞춤법 제정과 사전 편찬에 열을 올리던 1930-40년대의 활동은 주로 한의학계에 집중되어 있었다.³⁹⁾ 그러한 가운데 조선어학회와 관련한 일들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1935년에는 조선어학회가 간행했던 잡지 『한글』에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한글 통일안에 반대하는 이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여 하루 바빠 해결을 지을 문제”라며 협력을 촉구했다.⁴⁰⁾ 또한 마찬가지로 조선어학회에 참여했던 시인이자 아들인 조지훈(趙芝薰)⁴¹⁾과 함께 서울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조선어학회 회관을 찾아 자신의 고향인 경상도 지역 사투리의 특색을 알려주기도 했다.⁴²⁾ 조헌영이 한의학 전문어의 검토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한글학회50년사』에 실린 「큰사전 전문어에 협조한 이들」의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³⁾ 하지만 한의학 전문어 표제어에 따라 설명의 수준이 일정치 않고,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이 총 16명인 것과 달리 또

다른 회고록에는 ‘50여명의 전문가가 비밀 협조’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때⁴⁴⁾ 조헌영 외의 인물이 한의학 전문어 검토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의학 관련 표제어의 변화

1. 의료제도 관련 표제어

주지하다시피 본고에서 살펴본 우리말 사전들은 편찬 작업이 진행된 시기가 각기 다르며, 때문에 수집된 어휘와 풀이 역시 사전에 따라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 『(총)조선어사전』의 경우 1911년 4월 작업에 착수한 뒤 1913년 3월에 대부분의 어휘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 풀이를 시작하여 1920년에 사전을 발행하였다.⁴⁵⁾ 이에 비해 『(문)조선어사전』은 1922년부터 1928년까지 어휘를 수집한 뒤 1929년 편찬에 착수하여 1934년에 원고의 대부분을 정리하고 1938년 출간하였다.⁴⁶⁾ 또한 『큰사전』은 1929년 작업에 돌입하여 1939년에 어휘 수집을 완료한 뒤 1942년 초고를 완성하여 1947년부터 마지막 권이 출간된 1957년까지 순차적으로 출간하였다.⁴⁷⁾ 이처럼 3종의 사전들 사이에는 최대 30년 가까이 시차가 존재하는데, 사회 전 분야가 격변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사전의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1910년대 발표된 주요 의료법령들이 의료계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그중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1912년 3월)을 제외한 대부분은 『(총)조선어사전』의 어휘 수집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총)조선어사전』에 실린 어휘의 종류와 풀이는 이후의 두 사전과 차이를 보이며,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의료제도 변화

39) 그는 1934년 2월 장기무(張基茂)의 조선일보 연재로부터 촉발된 한의학 부흥 논쟁에 가세하여 논쟁을 주도했으며, 이후 신문과 저서를 통한 저술 활동을 지속하는 동시에 각종 강습회와 라디오 방송을 통한 강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다. (백유상, 趙憲泳의 생애와 醫學思想.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2(3). 2019. pp.107-112.)

40) 趙憲泳.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 한글. 3(5). 1935. pp.310-312.

41) 시인이자 국문학자로, 박목월·박두진과 더불어 공동으로 시집 『청록집』(1946)을 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조선어학회를 방문했던 일을 회고하며, 이때의 경험이 소년시절 자신에게 큰 감격을 주었으며,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또한 느끼게 되었음을 말했다. (趙芝薰, 趙芝薰全集4. 서울. 一志社. 1973. pp.34-37. 「花洞時節의 追憶」) 아버지 조헌영의 조선어학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아들에게도 이어져 훗날 조지훈은 문학가로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42년에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42) 한글학회. 『조선어 학회 수난』 50돌 글모이) 열음장 밑에 서도 물은 흘러. 서울. 한글학회. 1993. pp.30-31. (이석린, 「화동 시절의 이런 일 저런 일」)

43)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한글학회50년사. 서울. 한글학회. 1971. p.270.

44) 정인승 외 4인. 1970. “큰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 122. 1957. p.23.

45) 안예리.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경위 -‘조선사서원고’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0. 2017. pp.67-73.

46) 박용규.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2011. pp.265-275.

47) 한글학회.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pp.271-272, 536.

가 끼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근대적 의료제도 시행은 의료분야에 변화를 가져온 요인 가운데 분석이 용이한, 가장 객관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한의학은 의료분야의 일부로서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사전에 반영된 의료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한의학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의료를 실천하는 주체인 의료인과 그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전들이 수록한 표제어의 종류와 풀이를 살펴보았다.

표 2. 주요 우리말 사전의 편찬 작업과 출간 시기

사전	작업 기간	출간일자
『(총)조선어사전』	어휘수집 1911년 ~ 1913년	1920년 3월 30일
	풀이 1913년 ~ 1919년	
『(문)조선어사전』	어휘수집 1922년 ~ 1928년	1938년 7월 10일
	정리·주해 1929년 ~ 1934년	
『큰사전』	어휘수집 1929년 ~ 1939년	1947년부터 1957년까지 순차 출간
	초고 완성 1942년	

1) 의사, 의생

조선총독부는 1913년 11월 15일(1914년 1월 1일 시행) 「의사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0호)과 「의생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2호)을 발포했다.⁴⁸⁾ 이로써 의사(醫師)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의생(醫生)이라는 의료인이 생겨났다. 「의생규칙」에 따르면 의생은 ‘면허를 받고 의업(醫業)을 행하는 자’로서(제1조), 의사와 업무가 상당 부분 중첩되었다(경무총감부령 제6호).⁴⁹⁾ 조선총독부가 별도로 의생 제도를 수립한 취지는 종래에 활동하던 한의(漢醫)들이 당분간 의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위발 제781호, 위

발 제115호), 얼마 후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의 의생 면허 취득이 불허됨에 따라⁵⁰⁾ 결과적으로 서양 의학을 시술하는 의료인에게는 ‘의사’라는 명칭이, 전통의학을 시술하는 의료인에게는 ‘의생’이라는 명칭이 쓰이게 되었다.⁵¹⁾

- [총] 醫師(의스) 【名】⁵²⁾ 醫者.(醫士·醫生·醫員).
- [총] 醫生(의싱) 【名】「醫師」(의스)に同じ.
- [문] 의사(醫師) 【名】 양약으로 병을 고치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 [문] 의생(醫生) 【名】 한약으로 병을 고치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 [큰] 의사(醫師) 【이】⁵³⁾ 양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 (독터=Doctor②).
- [큰] 의생(醫生) 【이】 (의) 한약으로 병으로 고치는 것으로 업을 삼는 사람.
- [큰] 한방-의(漢方醫) 【이】 (한)의 한방의 의생(醫生). 또는 의술(醫術). (준말:한=漢醫).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세 개의 사전에서 ‘의사’와 ‘의생’을 검색해보면 『(총)조선어사전』의 경우 ‘의사’는 ‘의(醫)를 하는 사람’으로 단순하게 풀이하였으며 ‘의사(醫士)’, ‘의생(醫生)’, ‘의원(醫員)’을 동의어 처리했다. 마찬가지로 표제어 ‘의생’은 ‘의사’의 동의어로 풀이하였다. 즉, 『(총)조선어사전』의 편찬 당시 ‘의사’와 ‘의생’은 동의어로서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 반면 『(문)조선어사전』은 ‘의사’와 ‘의생’을 각각 양약과 한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풀이하였다. 『큰사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문)조선어사전』의 풀이와 같으며 ‘의사’ 항목에 ‘독터(Doctor)’를 동의어로 부기하여 서양식 의

48)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11월 15일. pp.139-141.

49) 진료부를 비롯해 각종 진단서, 증명서 발급하며 전염병 신고, 종두 시술, 예방주사 등을 수행하였다.

50) 박지현, 식민지기 醫生 제도와 정책의 운영 - 『醫療關係法製例規綴』중 의생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06. 2019. p.327.

51) 여인석 외 3인. 한국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 의사학. 11(2). 2002. pp.146-147.

52) 본고에서 인용한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의 원문에 포함된 “【名】”은 표제의 품사 중 명사(名詞)를 뜻한다.

53) 본고에서 인용한 『큰사전』의 원문에 포함된 “【이】”는 표제의 품사 중 명사(名詞)를 뜻한다.

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큰사전』은 의사와 의생 외에도 ‘한방-의’라는 표제어를 수록하고 이를 ‘한방의 의생’이라 풀이했는데, 한방의(漢方醫)는 의사가 아닌 의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총)조선어사전』에서는 의사와 의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이후의 두 사전은 그들을 양의(洋醫)와 한의(漢醫)로 각각 구분해 정의하였다.

1900년대에 들어 양의와 한의를 구분하는 관점은 이미 보편적이었던 듯하다. 1903년 발행된 『황성신문(皇城新聞)』의 기사에서 ‘한방의 의약(漢方之醫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학’과 ‘한방’이 상대어로 사용되었다.⁵⁴⁾ 하지만 양의와 한의를 구분했다는 것이 곧 제도적 구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의사와 의생을 구분한 근거인 「의생규칙」조차 ‘의생’을 ‘면허를 받고 의업을 하는 자’로만 규정하였을 뿐 양방과 한방의 구분을 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해당 법령이 제정될 당시까지만 해도 양방과 한방은 학문적 유래를 나눈 어휘일 뿐 직종의 구분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총)조선어사전』이 ‘의사’와 ‘의생’을 동의어로 표기한 것 역시 제도적 차이보다는 직업에 중사한다는 공통점 위주로 인식하였음을 나타낸다. 의사와 의생을 각각 양방과 한방으로 구분 짓는 인식은 『(문)조선어사전』이 발간되기까지 20여년의 기간 동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2) 공의, 한지의사, 한지의생

공의(公醫), 한지의사(限地醫師), 한지의생(限地醫生)은 모두 의료인의 도시 편중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였다. 공의(公醫)를 규정한 「공의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3호)은 1913년 11월 15일에 「의사규칙」, 「의생규칙」 등과 함께 발표되었으며, 공의는 경무총감(警務總監)이 지정한 곳에 배치되어 거주하면서 의업을 운영해야 했다(제2조, 제3조).⁵⁵⁾ 한지의사 제도는 1913년 「의사규칙」이 제정되면서 함께 시행되었으며,⁵⁶⁾ 의생의 경우 새롭게 의생 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당국이 지정한 지역에서만 개업할 수 있도록 1921년 「의생규칙」을 개정(조선총독부령 제154호)함으로써 신규 의생 모두가 한지의생으로 변경되었다.⁵⁷⁾

〔문〕 공의(公醫) 【名】 도청의 지령을 받아 그 도안의 시료를 맡은 의사.

〔문〕 한지-의생(限地醫生) 【名】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개업(開業)을 허하는 의생.

〔문〕 공의(公醫) 【이】 (의) 관청(官廳)의 지령을 받아, 그 구역 안의 시료(施療)를 맡은 의사

〔문〕 한지-의사(限地醫師) 【이】 (법)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락된 의사.

〔문〕 한지-의생(限地醫生) 【이】 (법)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개업을 하도록 허락된 의생.

『(총)조선어사전』의 경우 ‘공의’, ‘한지의사’, ‘한지의생’을 모두 표제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문)조선어사전』은 ‘공의’를 도청의 명령을 통해 도내 치료를 맡은 의사로 풀이하였다. ‘한지의사’는 표제어에 미포함 되었고, ‘한지의생’은 일정한 지역에서 개업이 허락된 의생으로 풀이하였다. 『큰사전』의 경우 ‘공의’와 ‘한지의생’은 『(문)조선어사전』의 풀이와 같으며, ‘한지의사’는 일정한 지역에서 개업이 허락된 의사라 설명하였다. 『(총)조선어사전』에 관련 표제어가 빠진 것은 의료인에 따른 의료행위의 지역적 제한의 제도화가 표제어 수집 작업의 완료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후에 공의, 한지의사, 한지의생의 법적 구분이 명확해지고 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의 수가 많아지면서 사전의 표제어 선택과 풀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간호부, 조산원

간호부(看護婦)와 조산원(助産員)은 당시 법령에 의해 면허를 부여받은 여성 의료 인력이다. 간호부

54) 皇城新聞. 1903년 8월 29일 기사. 「勸告醫學研究之必要」.

55) 朝鮮總督府官報. 1913년 11월 15일. pp.141-142.

56) 한지개업의(혹은 한지의업자)는 의사시험 일부에 합격하

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진료 경험에 있는 자를 5년 시한부로 면허를 부여하는 준의사(準醫師)를 가리킨다.(박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89쪽.)

57)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12월 3일. p.25.

에 관련한 사항은 1914년 10월 13일 발표된 「간호부규칙」(조선총독부령 154호)을 통해 법제화 되었으며,⁵⁸⁾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조선총독이 정한 간호부시험에 합격하거나 특별로 설치된 자혜의원 간호부과를 비롯한 간호부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게 면허가 부여되었다(제1조).

〔문〕 간호-부(看護婦) 【名】 당국의 면허를 받아 병상자(病傷者)의 간호를 직업으로 하는 여자.

〔큰〕 간호부(看護婦) 【이】 (의) 정부(政府)의 면허(免許)를 가지고, 의사(醫師)의 치료 및 수술을 도와주며 간호에 종사하는 사람.

『(총)조선어사전』에는 간호부에 관한 표제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전의 표제어 수집 완료 시기가 「간호부규칙」의 발표를 통해 간호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반면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에서는 ‘간호부’의 면허를 언급하였다. 특히 『큰사전』에는 의사(醫師)의 치료 및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1922년 5월 2일 발표된 「간호부규칙」의 개정안(조선총독부령 제 76호)에서 간호부는 업무 중 주치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사항(제8조)⁵⁹⁾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⁰⁾

〔총〕 産婆(산파) 【名】 産婦の介抱をなす老女。(別稱, 隱婆)

〔문〕 산파(産婆) 【名】 해산할 때에 아이를 받고 산모를 구호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여자. 隱婆.

〔큰〕 산파(産婆) 【이】 = 조산원(助産員).

〔큰〕 조산-원(助産員) 【이】 아기 낳는 때에 아기와 산모를 간호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여자. (산파=産婆)

한편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의 산파 인력 양성을

시급한 문제로 이해하고 교육에 힘썼다. 조선인들과 달리 출산할 때 산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던 일본인들이 산파가 없는 조선으로 이주하거나 특히 지방으로 가기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⁶¹⁾ 그리하여 1914년 7월 4일 「산파규칙」을 발표하여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 자혜위원의 조산부과를 졸업한 뒤 시험에 합격한 20세 이상 여성으로 조산원의 자격이 규정되었다(제1조).⁶²⁾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의 경우 ‘조산원’은 표제어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산파’만 표제어로 등록되었다. 전자의 경우 ‘산부를 간호하는 나이든 여자’로 풀이하고, 제도적 측면의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예들과 마찬가지로 사전의 표제어 수집 시기가 「산파규칙」의 발표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한편 「산파규칙」의 시행 이후 편찬 작업이 시작된 『(문)조선어사전』에서는 ‘산파’를 아이를 받고 산모를 간호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풀이함으로써 여성에 한정된 직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큰사전』의 경우 ‘조산원’과 ‘산파’를 모두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조산원’에 대한 설명은 『(문)조선어사전』의 ‘산파’와 동일하게 서술하였으며 ‘산파’는 ‘조산원’의 동의어로만 기록했다. 이는 『큰사전』의 편찬 시기에 ‘조산원’이 ‘산파’보다 공식적인 명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4) 약업(藥業) 관련 직종

1912년 발표된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제령 제 22호)과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55호)은 약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약제사(藥劑師), 약종상(藥種商), 제약사(製藥師), 매약상(賣藥商)과 같은 관련 직종의 업무 범위와 허가조건을 법률로 정했다.⁶³⁾ 관련 표제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총)조선어사전』의 경우

58)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10월 13일. pp.193-194.

59) “간호부는 주치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외에 피간호자에 대하여 치료기계를 사용하거나, 약품을 수여하거나 또는 그 지시를 할 수 없다.”

60) 朝鮮總督府官報. 1922년 5월 2일. pp.18-19.

61)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5. p.258.

62) 朝鮮總督府官報. 1914년 7월 4일. pp.53-54.

63) 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3월 28일. pp.8-9.

‘제약사’만을 표제어로 등록하였고,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은 법이 규정한 ‘약제사’, ‘약종상’, ‘제약사’, ‘매약상’을 모두 수록하였다.

[문] 약제사(藥劑師) 【名】 의사(醫師)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을 짓는 사람.

[큰] 약제-사(藥劑師) 【이】 약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약을 짓는 직분을 맡은 사람.

해당 표제어를 하나씩 살펴보면 ‘약제사’의 경우 『(문)조선어사전』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짓는 사람’이라 풀이하여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에서 제시한 약제사의 업무 범위(제1조)⁶⁴⁾를 반영했다. 한편 『큰사전』은 ‘약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언급하여 약제사의 면허 관련 사항(제2조)⁶⁵⁾을 반영한 모습이다.

‘약제사’의 설명이 제도적 요소를 포함한 것과 달리 나머지 업종들은 주로 일상적 수준에서 정의되었다. ‘약종상’의 경우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 모두 약제를 파는 일이나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⁶⁶⁾ 『(총)조선어사전』이 유일하게 표제어로 등재한 ‘제약사’의 경우 약제를 제조하는 사람으로 풀이하였고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도 그와 대동소이하다.⁶⁷⁾ ‘매약상’에 대해서도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 모두 매약(賣藥)으로 만든 약품을 파는 사람으로만 풀이하여 제도적 차원의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다.⁶⁸⁾ ‘약제사’와 나머지 업종의 풀이 내용에 보이는 이 같은 차이는 법령 자체의 특징에서 연유

64) “약제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제를 조합하는 자를 말한다.”

65) “조선총독의 약제면허증 혹은 내무대신의 약제사면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6) [문] 약종상(藥種商) 【名】 약제를 파는 장사. 또는 그 사람.

[큰] 약종-상(藥種商) 【이】 약제를 파는 직업. 또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

67) [총] 製藥師(제약사) 【名】 藥劑を製する人.
[문] 제약사(製藥師) 【名】 약제를 만드는 사람.

[큰] 제약-사(製藥師) 【이】 제약(製藥)하는 사람.

68) [문] 매약상(賣藥商) 【名】 매약에 관한 약품만 파는 장사.

[큰] 매약상(賣藥商) 【이】 매약(賣藥)으로 만들어 놓은 약품(藥品)을 파는 사람

한 것으로 보인다.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을 살펴보면 약종상, 제약사, 매약사는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업종이다(제3조). 이에 비해 약제사는 조선총독이 부여한 면허증 혹은 내무대신이 부여한 면장을 보유한 전문직이며, 여타 업종과 별개의 조항(제2)을 두어 자격을 명시했다. 즉, 약제사는 나머지 약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업종이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표제어 풀이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배약(賣藥) 【名】 관청의 허가를 맡은 약방문에 의하여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약.

[큰] 배약(賣藥) 【이】 관청의 허가를 맡아서 약방문(藥方文)에 의지하여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약

약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표제어 중에는 당시 유행했던 ‘매약’도 포함되어 있다. 『(총)조선어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이후의 두 사전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약방문(藥方文)에 의지’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는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에서 일본약국방(日本藥局方) 혹은 외국약국방(外國藥局方)에 기재된 것을 의료용 약품으로 규정한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⁶⁹⁾

5) 의료기관

일제강점기에는 병원(病院)과 의원(醫院)이 혼용되는 경우가 흔했으며, 병원은 서양식 병원뿐 아니라 한방병원을 지칭하기도 했다.⁷⁰⁾ 병원과 의원이 법적으로 구분된 것은 1919년 「사립병원취체규칙」

69) ‘매약상’과 ‘매약’의 풀이에 언급된 ‘약품’과 ‘약방문’은 양약 및 양약의 조제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약국방과 외국약국방에는 극약·독약의 일부로 한약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한약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한의학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2002. pp.353-356.) 또한 한약약국방(漢藥藥局方)의 제정을 위한 한약조사위원회는 1937년 결성되어 1938년부터 검토를 시작했으므로 한약을 염두에 둔 설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박윤재, 일제의 한의학 정책과 조선 지배. 의사학. 17(32). 2008. p83.)

70) 신구환, 해방 전후기 의료계의 의학인식과 사립병원의 발전 : 계단법인 백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사회사연구. 1. 2018. p.81.

(조선총독부령 제53호)이 발포된 이후이며, 이 법에 따라 최소 10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⁷¹⁾

- [총] 醫院(의원) 【名】 病院.
 [문] 의원(醫院) 【名】 병자를 치료하는 곳.
 [문] 병원(病院) 【名】 병자를 수용하여 병을 고치는 곳.
 [큰] 의원(醫院) 【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설비한 집.
 [큰] 병원(病院) 【이】 병든 사람을 수용하며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한 의원(醫院). 법규에 열 사람 이상의 앓는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는 때에 병원이라 일컫고, 또 전염병 환자를 받게 됨. (호스피탈=Hospital).

‘병원’과 ‘의원’에 관한 사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조선어사전』에서는 ‘의원’을 ‘병원’이라 하였으며 ‘병원’에 대한 별도의 표제어를 두지 않았다. 『(문)조선어사전』의 경우 ‘의원’은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설명했고, ‘병원’은 ‘병자를 수용하여 병을 고치는 곳’이라 하여 ‘의원’과 달리 ‘입원’이라는 특성을 언급하였다. 『큰사전』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의원’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설비한 집’이라 풀이한 반면, ‘병원’은 ‘병을 고치기 위한 일정한 설비를 한 의원’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전염병 환자를 받는다는 법규를 직접 인용하였다. 이러한 설명들로 미뤄보건대 1930년대 이후 편찬된 두 사전은 ‘의원’을 의료기관을 포괄하는 용어로, ‘병원’을 입원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 [문] 자혜-의원(慈惠醫院) 【名】 가난한 백성의 시술(施術)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큰] 자혜 의원(慈惠醫院) 【이】 가난한 백성의 병을 고쳐 줄 목적으로 베푸는 병원.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의료기관들 중 자혜의원은 1909년 12월부터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한 관립병원으로 일본 지배의 혜택을 선전하기 위해 무상 진료를 시행하였다.⁷²⁾ 『(총)조선어사전』은 ‘자혜의원’을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았지만,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은 가난한 백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병원이라 풀이하였다. 그러나 실상 1925년 이후 자혜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더 이상 시혜적인 목적을 표방하지 않았으므로,⁷³⁾ 두 사전의 풀이는 1925년 이전의 자혜의원을 설명한 것이다. 『(문)조선어사전』이 변경된 자혜의원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세영이 해당 어휘를 수집한 것이 1925년 이전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혜의원의 성격과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예전에 가졌던 의미가 사전 편찬자의 인식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큰사전』 또한 거의 동일한 풀이를 기재하였는데, ‘자혜의원’에 대한 사전들의 풀이는 제도적 변화가 일반 사전에 반영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총)조선어사전』의 경우 표제어의 종류와 내용 대다수가 일상어로서의 정의에 해당하며 새로 발포된 의료 법규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에서는 명칭, 면허, 허가, 업무 범위, 성별 등 제도적 요소가 포함된 풀이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의학 관련 표제어

제도적 변화가 표제어나 그 풀이에 미친 영향은 가장 가시적이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일제강점기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의 변화나 인식의 변화는 보다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더불어 일

72)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해안. 2005. p.247.

73) 1909년 발표된 「자혜의원관제」에는 ‘빈궁자’에 대한 ‘무료 진료’라는 조항이 존재했으나, 1925년 「조선도립의원관제」(칙령86호)와 「도립의원규정」(조선총독부령 제29호)이 공포되고 모든 자혜의원이 도립의원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조항 모두 삭제되었으며, 더 이상 시혜적인 목적을 표방하지 않았다.

71)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4월 7일. pp.85-86.

제강점기가 ‘근대화’가 진행되던 과도기였으며 사전 편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기에 표제어 별로 일관성이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주도의 ‘근대화’가 가져온 변화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구분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 ‘한의학’ 자체와 그것을 실천하는 ‘한의사’에 관한 풀이에서 그 구분을 엿볼 수 있다.

[문] 한방(漢方) 【名】 지나에서 발달한 의술.
[큰] 한방(漢方) 【이】 (한의) 중국으로부터 동양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진 의술(醫術)의 방법.

검토한 사전들에서 ‘한의(漢醫)’는 모두 한의사를 가리키는 어휘로 풀이되었으며,⁷⁴⁾ 한의학 전반을 가리키는 표제어는 ‘한방’이다. 『(총)조선어사전』은 ‘한방’을 표제어로 신지 않았으며, 이후의 두 사전은 중국에서 유래한 의술이라는 점을 위주로 한의학을 규정하였다. 『(문)조선어사전』이 ‘한방’을 의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명사로 표기한 것에 비해 전문어 구분이 세밀해진 『큰사전』은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큰] 구의(舊醫) 【이】 “한의(漢醫)”의 속칭(“신의 = 新醫”의 대).
[큰] 신의(新醫) 【이】 “양의(洋醫)”의 속칭(“구의 = 舊醫”의 대).

한의학과 관련하여 당시의 인식을 드러내는 가장 특징적인 설명은 『큰사전』에 수록된 ‘구의’와 ‘신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옛날 의사를 뜻하는 ‘구의’와 새로운 의사를 뜻하는 ‘신의’를 각각 ‘한의’와 ‘양의’로 대비한 것이다. 이러한 풀이는 의학 분야뿐 아니라 학문 분야의 속성을 규정하는 일반화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큰사전』에 실린 표제어 중 ‘구학문’과 ‘신학문’을 살펴보면, 재래(在來)와 근래(近來), 한학(漢學)과 양학(洋學)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설명되었으

74) [총] 한의(漢醫) 【名】 漢方醫.
[문] 한의(漢醫) 【名】 한방의 의술을 연구한 의생. 漢方醫.
[큰] 한의(漢醫) 【이】 (한의) “한방의(漢方醫)”의 준말.

며,⁷⁵⁾ 이 같은 구분방식이 의학 분야에도 고스란히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앞선 두 사전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큰사전』의 편찬이 진행된 일제강점기 후반에 들어 ‘근대화=서양화’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전 편찬 당시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의학 관련 표제어를 인체 구조, 생리, 병인·병기, 맥, 병증, 본초, 처방, 경락·침구, 의서와 관련한 9개 종류로 구분하고 특징적인 예시들을 위주로 비교·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체 구조 관련 표제어

인체의 구조에 관한 표제어를 살펴보면 한의학 고유의 용어들을 상당수 수록하면서도, 표제어의 풀이에 활용된 배경지식과 인체관이 한의학으로부터 서양 해부학과 생물학으로 헤게모니(Hegemony)가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큰] 오장(五藏) 【이】 (한의) 다섯 가지 내장(內臟). 곧 간장(肝臟), 심장(心臟), 비장(脾臟), 폐장(肺臟), 신장(腎臟). (오내 = 五內).
[큰] 육부(六腑) 【이】 (한의) 소화기(消化器) 계통의 여섯 가지 부분. 곧 담(膽), 위(胃), 소장(小腸), 대장(大腸), 방광(膀胱), 삼초(三焦).

검토한 세 개의 사전은 한의학에서 인체를 설명할 때 기본이 되는 ‘오장’, ‘육부’, ‘오장육부’를 모두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은 해당 표제어들을 일반 명사로 표기하였으나, 어휘의 유래를 세분화한 『큰사전』에서는 이들을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전문어 표기뿐 아니라 풀이 내용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앞선 두 사전들

75) [큰] 구학문(舊學問) 【이】 근래(近來)에 구미(歐美)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문에 대립하여, 재래(在來)의 한학(漢學)을 이룸. (준말: 구학=舊學). (“신학문=新學問”의 대).
[큰] 신학문(新學問) 【이】 재래(在來)의 한학(漢學)에 대립(對立)하여, 근래에 구미(歐美)로부터 새로 들어온 학문을 이룸. (준말: 신학=新學). (“구학문=舊學問”의 대).

이 오장⁷⁶⁾과 육부⁷⁷⁾의 종류를 나열한 것에 그친 것과 달리 『큰사전』은 ‘소화기 계통’과 같은 기능적 설명과 ‘오내’와 같은 동의어를 추가하였다. 배열의 순서에도 차이가 보이는데, 앞서 오장을 폐·심·비·간·신의 순으로 종류를 나열한 것과 달리 『큰사전』은 간·심·비·폐·신의 순으로 나열하였다. 전자가 해부학적 위치를 기준으로 위쪽부터 기술한 것이라면 후자는 오장의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다 한의학적 설명 방식에 가깝다. 이는 전문어 분류를 심화하면서 해당 분야 고유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 흔적으로 생각된다.

[총] 肝臟(간장) 【名】肝臟. (略, 肝)

[문] 간장(肝臟) 【名】오장(五藏)의 하나. 뱃속의 오른쪽 위 횡격막(橫膈膜)의 아래 밥통 위에 있어서 소화에 필요한 물을 만드는 기관.

[큰] 간장(肝臟) 【이】(생) 내장(內臟)의 하나. 배속의 오른 편 위쪽, 횡격막(橫膈膜) 아래에 있어 밥통을 반쯤 덮은 적갈색(赤褐色)의 소화선(消化腺)인데, 좌우 두 개의 간잎으로 되고, 가운데에 쓸개가 붙었음. 혈액(血液)으로부터 신진대사(新陳代謝)에 의한 불용산물(不用產物)을 담즙(膽汁)으로 변화시키어 담낭(膽囊)으로 보내며, 또 뇌수(腦髓)에 필요한 일종(一種)의 호르몬(Hormon)을 분비(分泌)하는 작용도 행함. (준말:간=肝①)

살펴본 바와 같이 ‘오장’은 『큰사전』에 이르러 한의학 전문어로 구분되었으나 그것을 구성하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은 생리, 생물(生理, 生物)의 전문 분야에서 유래한 어휘로 판정하여 ‘(생)’으로 표기하였다.⁷⁸⁾ 이는 장기들이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

각된다. 풀이는 해부학적 위치 및 형태, 서양의학에서 설명하는 생리 기능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점차 전문적이고 상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풀이의 내용 중 한의학적 관점의 간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문)조선어사전』이 ‘오장(五藏)의 하나’라고 했던 것에 비해 『큰사전』에서 ‘내장(內臟)의 하나’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한의학의 간 개념과 결부된 ‘간경(肝經)’, ‘간경풍(肝經風)’, ‘간기(肝氣)’, ‘간열(肝熱)’, ‘간옹(肝癰)’ 등의 표제어들을 모두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장’의 설명에 한의학적 설명을 제외한 것은 전문어 표기와 풀이 내용 간에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다.

[총] 命門(명문) 【名】鳩尾. 명치.

[문] 명문(命門) 【名】가슴뼈 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心窩. 中脘.

[큰] 명문(命門) 【이】①=명치. ②(한의) 오장 육부의 생리적 노작(勞作)을 조절하는 각종 물질을 통섭(統攝)하는 기관(器官).

앞서 살펴본 ‘간장’의 예와 달리 ‘명문’은 한의학 고유의 용어이다. 앞선 두 사전에서는 ‘명문’을 ‘명치’라는 신체 부위로서 설명하였으나 『큰사전』에서는 기존의 설명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한의학과 관련한 설명을 추가하고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했다. 풀이에서는 인체의 근원적 생명력과 연관되는 전통적 의미⁷⁹⁾와 달리 오장육부의 생리를 조절하고 물질을 통섭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았다.⁸⁰⁾ 한의학 고유의 용어를 전문어로 추가하면서도 풀이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신지식을 통해 근대적 의미를 담으려는 집필진의 의도가 녹아든

76) [총] 五藏(오장) 【名】肺臟·心臟·脾臟·肝臟·腎臟의稱.

[문] 오-장(五藏) 【名】 폐장(肺臟)·심장(心臟)·비장(脾臟)·간장(肝臟)·신장(腎臟)

77) [총] 六府(육부) 【名】大腸·小腸·胃·膽·膀胱·三焦의稱.

[문] 육부(六府) 【名】 대장(大腸)·소장(小腸)·위(胃)·담(膽)·방광(膀胱)·삼초(三焦)

78) ‘간’, ‘심’, ‘비’, ‘신’은 ‘간장’, ‘심장’, ‘비장’, ‘신장’의 준말로 풀이하였다. (‘폐’에는 ‘폐장’의 준말이라는 설명이 부재함)

79) 전국한의학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민문화사. 2010. p.96.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系也, 故男子以藏精, 女子以系胞.”(36難)

80) 참고로 19세기 말 간행된 이준어 사전 가운데 하나인 『한불주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1880)에서는 명문을 표제어로 실으면서 그 의미를 “Les reins ou le rognon du côté droit (콩팥 또는 우측의 콩팥)”이라고 풀이했는데, “左腎右命門”라는 한의학적 관점이 포함된 점이 흥미롭다.

것으로 생각된다. 『큰사전』의 전문어 감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조헌영이 1934년 출간한 한의학 개론서인 『통속한의학원론』에서 명문을 내분비계통의 총칭으로 해설한 것⁸¹⁾과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총] 三焦(삼초) 【名】 六腑の一, 上中下の三焦に分れ, 上焦は心臓の下, 中焦は胃の中, 下焦は膀胱の上 にちりて水分の排泄を掌るもいふ. 三焦.

[문] 삼초(三焦) 【名】 한방의가 일컫는 육부(六腑)의 띠 이름. 상초·중초·하초(上焦·中焦·下焦)의 셋으로 나누는데 상초는 심장(心臓)아래 중초는 위경(胃經)속 하초는 방광(膀胱) 위에 있어서 수분(水分)의 배설(排泄)을 맡았다고 한다.

[큰] 삼초(三焦) 【이】 (한의) 상초(上焦)와 중초(中焦)와 하초(下焦). 상초는 심장(心臓) 아래, 중초는 위경(胃經) 속, 하초는 방광(膀胱) 위에 있어서 수분(水分)의 배설(排泄)을 맡았다 함.

‘명문’과 마찬가지로 ‘삼초’는 한의학 고유의 용어이며, 이전의 두 사전에서 일반 명사로 기록하였으나 『큰사전』에서는 한의학 전문어로 구분하였다. 삼초에 관한 세 개 사전의 풀이는 대동소이한데, 상중하로 나누어 각각의 부위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삼초의 기능을 설명했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총)조선어사전』은 삼초를 ‘六腑の一(육부의 하나)’라 하였으나 『(문)조선어사전』이 ‘육부(六腑)의 띠 이름’으로 오역하였고, 『큰사전』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중초의 부위에 관한 설명에서는 『(총)조선어사전』이 ‘胃の中(위의 속)’이라 한 것을 『(문)조선어사전』이 ‘위경(胃經) 속’으로 바꾸어 경락의 의미를 더함으로써 중초의 실제에서 오히려 멀어졌고, 『큰사전』 역시도 그와 동일한 설명을 남겼다.

기능으로 제시한 ‘수분의 배설’은 삼초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한의학에서 말하는 삼초의 본의를 정확히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⁸²⁾

『(총)조선어사전』에서 처음 제시한 것을 나머지 사전들이 그대로 수용했다. 또한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의 풀이에는 ‘~을 맡았다 함’이라고 하여 삼초의 기능에 대해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서술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삼초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전통 지식에 관한 기록을 남기되 현재에는 유효하지 않은 지식이라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삼초의 풀이에 나타난 부정확한 설명과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서술어의 사용은 한의학 전문어의 풀이 당시에 한의학 전문가의 관여가 충분치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큰] 고향(膏肓) 【이】 (생) 심장(心臓)과 격막(膈膜)의 사이.

[문] 고향지질(膏肓之疾) 【이】 병균이 고향에 침범하여 생긴 어려운 병.

‘고향’은 이전 사전에 없던 표제어를 추가한 것으로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 모두 ‘고향지질’만을 수록하였다.⁸³⁾ 『큰사전』에서는 ‘고향지질’의 유래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고향’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예로 ‘구규출혈’과 ‘구규’를 확인할 수 있다.⁸⁴⁾ ‘고향’은 한의학에서 실질적인 병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향지질(膏肓之疾)’, ‘병입고향(病入膏肓)’ 등과 같이 사용되어 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인체의 가장 깊은 곳, 즉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큰사전』에서는 심장과 격막이라는 해부학적 위치를 통해 규정하였으며 생리, 생물(生理, 生物)의 전문어로 표기했다. 또한 ‘고향지질’의 풀이에서는 고향에 침입하는 병리적 요소를 ‘사기(邪氣)’가 아닌 ‘병균’이라 표현했는데, 세균학설이

인한 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작용을 함.”이라 하여 심막의 부위와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83) [총] 膏肓之疾(고향지질) 【名】 不治の難症.
[문] 고향지질(膏肓之疾) 【名】 고치지 못할 어려운 병.
84) [큰] 구규(九竅) 【이】 (한의) 눈, 코, 입, 귀의 일곱 구멍과 똥, 오줌 구멍을 합쳐서 모두 아홉 구멍을 일컬음.
[큰] 구규출혈(九竅出血) 【이】 (한의) 놀라든지 다치든지 하여 구규에서 피가 나는 병.

81)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學林社. 1990. p.164.
82) 이러한 양상은 ‘심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포’는 앞선 두 사전의 표제어에서 제외되었고 『큰사전』에만 수록되었는데,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했으나 “심장(心臓)을 싸고 있는 살주머니. 기관(器官)과 기관 사이에서 마찰(摩擦)로

이미 지배적인 병인론으로서의 지위를 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리 관련 표제어

‘정’, ‘기’, ‘신’, ‘혈’은 한의학에서 인체의 생명 활동을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한 우리말 사전들은 정, 기, 신, 혈을 표제어에 포함하지 않거나 그 풀이에 한의학 이론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된 것도 소수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정(精)’의 경우 오직 『큰사전』에서만 표제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어가 아닌 일반 명사로 표기되었다. 풀이는 ‘정수(精髓)’ 혹은 ‘정수(精水)’의 준말로 되어 있는데⁸⁵⁾ 각각 골수⁸⁶⁾와 정액⁸⁷⁾을 가리켜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정’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신(神)’은 세 사전 모두 종교적 의미로서만 풀이하였고, 한의학과 관련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⁸⁸⁾ ‘기’의 경우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은 일반 명사로 표기하였고, 『큰사전』은 항목을 세분하여 철학 분야의 전문어와 일반 명사로서의 의미를 구분해 서술했지만 한의학 전문어로는 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전들의 풀이 중에는 ‘심신의 정력’, ‘원기’, ‘기운’ 등 한의학에서 통용되는 의미들이 다수 포함되었다.⁸⁹⁾ ‘기’에 비해

‘혈’은 3종의 사전 모두에 표제어로 수록되지 않았다. 『큰사전』이 ‘혈액’을 ‘피’의 동의어로 기록하였을 뿐이며, ‘피’의 풀이에는 한의학과 연관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⁹⁰⁾

[큰] 정기(正氣) 【이】 ①지극히 크고,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공변된 천지(天地)의 원기(元氣). 만물(萬物)의 근원이 되는 기운. ②바른 기상(氣像). ③(한의) 생명(生命)의 원기, 병에 대한 저항력(抵抗力).

[큰] 사기(邪氣) 【이】 ①요사스럽고 나쁜 기운. ②몸을 해치고, 병이 나게 하는 외기(外氣).

『큰사전』은 ‘기’를 한의학 분야의 전문 어휘로 구분하지 않은 것과 달리, ‘기’의 하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일부 표제어를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대표적으로 ‘정기(正氣)’의 경우 『(총)조선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문)조선어사전』에는 일반 명사로써 설명되었지만⁹¹⁾ 『큰사전』은 설명③에서 기존에 없던 의학적 풀이를 추가하고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했다. 정기와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사기(邪氣)’도 표제어로 등재하였는데, 풀이에 외사(外邪)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큰] 기분(氣分) 【이】 ①마음의 저절로 향하는 상태(狀態) ②(심) 감각(感覺)에 따라 생기는 단순(單

85) [큰] 정(精) 【이】 ①“정수(精髓)①”의 준말. ②“정수(精水)”의 준말.

86) [큰] 정수(精髓) 【이】 ①뼈의 중심(中心)에 있는 골. (준말: 정=精①). ②일의 중심이 되는 요점(要點)을 비유.

87) [큰] 정수(精水) 【이】 (생) 생식기에서 성교(性交)할 때에 나오는 물. 빛이 희고 걸쭉하며 끈끈한데 무수한 정충(精蟲)이 있음. (음수=陰水, 정액=精液②). (준말: 정=精②)

88) [총] 神(신) 【名】 ㉠靈妙なる精氣. ㉡巫覡に乘り移りたる鬼神.

[문] 신(神) 【名】 ㉠영묘한 정기. ㉡[신명(神明)]의 준말. ㉢하느님. ㉣무덤에게 내리는 귀신. ㉤마음에 깊이 끼는 흥미.

[큰] 신(神) 【이】 ① 종교의 대상으로 우주를 주재(主宰)하는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존재. ②“귀신(鬼神)”의 준말. ③(예수) = 하나님.

89) [총] 기(氣) 【名】 「기운」の○に同じ. ㉠怒氣.

[문] 기(氣) 【名】 ㉠풍·우·한서들과 같은 천지간의 자연적 현상. ㉡심신의 정력. 원기. 힘. ㉢만물생성의 근원. ㉣맛. 냄새. ㉤공중으로 떠오르는 김. ㉥세력. ㉦모양. ㉧노기.노색.

[큰] 기(氣) 【이】 ①(철) 동양 철학에서 힘의 본질을 일컫는 말. (“이=理”의 대). ②생활(生活), 활동(活動)의 힘. 원기(元氣), 정기(精氣), 생기(生氣), 기력(氣力) 따위. [-가 부족하다]. ③있는 힘의 전부.[-를 쓰다]. ④숨쉴 때 나오는 기운.[-가 막힌다.] ⑤뻘이 나가는 기운. [-를 퍼지 못한다. -가 쭈그러든다. -가 질린다]. ⑥객기로 쓰는 기운. [-가 과하다].

90) [큰] 피¹ 【이】 (생) 사람 또는 동물(動物)의 몸 안을 돌며 영양(營養)을 맡은 붉은 빛의 액체(液體). 임통으로부터 맥(脈)을 통하여 온 몸에 퍼지는 것으로 생활(生活)에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구실을 함. 혈장(血漿)과 혈구(血球)로 되었고, 적혈구(赤血球), 백혈구(白血球)가 있음. 고등동물(高等動物)의 것은 덩고, 물고기의 것은 차며, 벌레에는 없는 것도 있음. (혈액=血液).

91) [문] 정기(正氣) 【名】 ㉠공명정대한 원기. ㉡정당한 의기. ㉢천지·인간을 통하여 있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기운.

純)한 감정(感情) ③(한의) 혈기(血氣)에 대하여 원기(元氣)의 방편을 가리킴.

[큰] 혈분(血分) 【이】 (생) 피의 분량(分量). 기분(氣分)에 대하여 영양 방면(營養方面)을 가리키는 말.

‘기분’과 ‘혈분’은 이전의 두 사전과 달리 『큰사전』에서 한의학적인 의미를 보충한 예에 속한다. ‘기분’의 경우 『(총)조선어사전』에서 ‘마음’을 뜻하는 어휘로 풀이하였으며⁹²⁾ 『(문)조선어사전』에는 해당 표제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큰사전』에서 혈과 기의 대비를 통해 설명하고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했다. 그에 반해 ‘기분’의 상대어라 할 수 있는 ‘혈분’은 한의학 전문어로 구분되지 않았는데, 풀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분’과 대가 된다고 밝혀 한의학적 관점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분’과 마찬가지로 앞선 두 사전의 풀이⁹³⁾에 새롭게 설명을 추가하였으나 전문어 표기가 실수로 누락된 경우라 생각된다.

3) 병인·병기 관련 표제어

‘기울’, ‘담음’, ‘어혈’, ‘식적’, ‘허증’ 등 병의 원인과 기전을 설명하는 한의학 용어들 다수가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우리말 사전에 수록되었다. 이들은 앞선 두 사전에서 의학 전문어로 표기되었으나 한의학을 전문 분야로 구분한 『큰사전』에서는 모두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되었다.

[총] 기鬱(기울) 【名】 (醫) 心氣鬱積して胸部に疼痛を感ずる病症.

[문] 기울(氣鬱) 【名】 (醫) 심기가 울결하여 가슴이 아픈 병.

[큰] 기울(氣鬱) 【이】 (한의) 심기(心氣)가 울적(鬱積)하여 가슴 속이 아픔을 느끼는 병증(病症).

한의학에서 ‘기울’은 심기(心氣)의 문제에 한정되

지 않으며 병을 유발하는 원인 혹은 기전에 속하지만, 사전들 모두 심리적 원인으로 유발된 흉통이라는 의미로 설명하여 증상을 뜻하는 용어로 보았다. 이러한 양상은 ‘어혈’⁹⁴⁾을 몸에 생긴 멍의 의미로 풀이한 것과 ‘식적’⁹⁵⁾을 소화불량의 의미로 풀이한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총] 痰飲(담음) 【名】 (醫) 水氣腸胃内に潭り瀝瀝たる音を發する病症, 肥満するものご羸瘦するものごあり, 胃擴張の如きこれなり

[문] 담음(痰飲) 【名】 (醫) 장위 속의 근육이 느즈러지고 가슴이 답답한 병.

[큰] 담음(痰飲) 【이】 (한의) 장(腸), 위(胃)에 물기(水氣)가 고여 있어서, 출렁출렁 소리가 나는 병. 대개는 위확장(胃擴張)으로 그리 됨.

‘담음’ 또한 기전에 의학 전문어였던 것이 『큰사전』에서 한의학 전문어로 구분된 경우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담음’은 병의 증상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장, 위라는 병소와 더불어 답답함, 출렁거리는 소리를 특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설명들은 비교적 담음의 본의에 가까우나 한의학에서의 담음은 주로 병인, 병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비위의 문제와 밀접하고 답답증이나 출렁이는 소리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부위와 증상이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표제어가 유래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일반적 의미와 다른 풀이를 제시한 까닭은 한의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이론보다는 객관적 특징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라

94) [총] 瘀血(어혈) 【名】 (醫) 皮下溢血·皮下出血の稱(積血·蓄血)

[문] 어혈(瘀血) 【名】 (醫) 살속에 맺힌 피뭉치. 積血. 蓄血.

[큰] 어혈(瘀血) 【이】 (한의) 피가 순하게 돌지 못하고 한 곳에 남아 있어서 생기는 병. 흔히 타박(打撲) 따위로 인하여서 생김. (적혈=積血, 축혈=蓄血)

95) [총] 食積(식적) 【名】 (醫) 消化不良のため胃に凝結物な生ずる症病(滯積)

[문] 식적(食積) 먹은 음식이 잘 삭지 않고 뭉쳐서 생기는 병.

[큰] 식적(食積) 【이】 (한의)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뭉쳐서 생기는 병. (체적=滯積)

92) [총] 기分(기분) 【名】 心地.

93) [총] 血分(혈분) 【名】 血の分量.

[문] 혈분(血分) 【名】 피의 분량.

생각되며, 그 결과 부위와 증상을 풀이의 중심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총] 虛症(허증) 【名】(醫) 氣力·血液の不足して身體衰弱する病症の總稱, 例へば肺結核・神經衰弱症の如きらの.

[큰] 허증(虛證) 【이】(한의) 기력(氣力), 혈액(血液)의 부족으로 몸이 쇠약한 병의 통틀어 일컬음. 폐결핵(肺結核), 신경쇠약(神經衰弱) 따위.

‘허증’은 『(총)조선어사전』의 내용을 『큰사전』이 그대로 번역하였으며, 의학 전문어에서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를 변경한 경우이다. 『(문)조선어사전』에 해당 표제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풀이에서는 ‘기력’과 ‘혈액’의 부족을 원인으로 하는 병이라 하였는데, 기혈을 기력과 혈액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담음’을 설명할 때 ‘위확장’을 예시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폐결핵, 신경쇠약 등 서양의학의 병명을 들어 설명함으로써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병증을 대응시키려는 경향이 보인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울’, ‘담음’, ‘어혈’, ‘식적’, ‘허증’ 등의 한의학 용어들은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큰사전』에 이르러 한의학 전문어로 구분하여 표기되었다. 그러나 본래 병인과 병기를 의미했던 것과 다르게 병증을 가리키는 용어로 풀이하였으며, 고유의 의미를 기록하기보다는 해부학적 부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서양의학 병명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휘의 기원이 한의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져 사전의 집필자들이 생각했던 당시의 표준적 지식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맥 관련 표제어

맥 또한 대표적인 한의학적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사전에 실린 표제어를 살펴보면 이 개념 또한 ‘근대화’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큰] 脈(맥) 【名】身體の脈搏を知り得べき處.

[문] 맥(脈) 【名】⊖동물의 몸 속에 있는 동맥·정맥(動脈·靜脈)이 통하는 맥관. ⊖손의 맥박(脈搏)을 짚어 보는 곳. ⊖사물을 연락하여 계통을 짓는 곳. ⊕입 거죽에 증황으로 퍼진 줄. ⊕(鑛)광물질이 바위 틈에 진 줄.

[큰] 맥(脈) 【이】①(생) 동물의 몸 안에 있어서 피가 돌아다니는 줄기. ②(의) 손목과 발목에 맥박(脈搏)이 뛰는 곳. ③(광)=쇠줄. ④“맥락(脈絡)②”의 준말. ⑤(민) 풍수지리(風水地理)에 용(龍)에 생기(生氣)가 흐르는 줄.(①②맥).(옛말:맥). 맥도 모르고 침통 혼든다【마디】 사리도 모르고 덤빈다는 말.

‘맥’의 경우 『(총)조선어사전』에는 맥박을 알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풀이하였으며, 나머지 두 사전에서는 그보다 다양한 의미를 수록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맥동처로 손목을 지목한 것, 맥을 짚는다는 표현, 침을 놓는 것과 맥을 연관 지어 관용구로 제시한 것 등에 진맥의 의미가 어느 정도 녹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를 정의할 때는 혈관과 맥동처의 의미를 주로 부각했으며, 한의학적 설명은 배제하였다. 전문어를 표기할 때도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은 일반 명사로 두었고 『큰사전』은 항목에 따라 생리, 생물, 의학, 광물, 민속 등의 전문어로 표기하였을 뿐 한의학은 전문어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큰] 부맥(浮脈) 【이】(한의) 살 거죽에 손 끝을 대기만 하여도 맥이 뛰는 것을 알 수 있는 맥.(“침맥=沈脈”의 대.)

[큰] 침맥(沈脈) 【이】(한의) 맥학상(脈學上) 부(浮), 침(沈), 지(遲), 삭(數) 네 맥의 한 가지. 손 끝으로 눌러 보아야만 뛰는 것을 알 수 있는 맥.(“부맥=浮脈”의 대.)

[큰] 지맥(遲脈) 【이】(한의) 맥학상(脈學上) 부(浮), 침(沈), 지(遲), 삭(數)에서 지(遲)에 속한 맥. 보통 사람보다 적게 뛰는 맥.

[큰] 삭-맥(數脈) 【이】(한의) 맥학상(脈學上)의 부침(浮沈)과 지삭(遲數)의 한 가지. 삭맥은 보통 사람보다 맥(脈)의 뛰는 번수가 많은 맥.

앞선 두 사전과 달리 『큰사전』에는 한의들이 진단에서 확인하는 맥의 종류 중 ‘부맥’, ‘침맥’, ‘지맥’, ‘삭맥’을 표제어에 포함하고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각각의 풀이에는 네 가지 맥을 일종의 전체집합처럼 언급한 경우가 보이며, 이들 외의 맥은 사전에 실지 않았다. 따라서 부침지삭은 당시에 맥의 대표격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주관적 감각을 통해 형상이 표현되는 여타 맥들에 비해 박동의 빈도와 축지의 심천에 따라 비교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용이한 맥들이다. 반대로 다양한 움직임이나 형상을 묘사함으로써 규정되는 여타의 맥들은 설명의 난해함과 추상성으로 인해 표제어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병증 관련 표제어

병증 관련 표제어로는 ‘각기’, ‘개창’, ‘고뿔’, ‘노채’, ‘달병’, ‘소갈증’, ‘천식’ 등의 병증명이 세 개의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큰사전』의 경우 ‘달병’의 종류에 속하는 ‘황달’, ‘곡달’, ‘주달’, ‘여로달’, ‘흑달’ 등을 모두 표제어로 수록하고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총〕 脚氣(각기) 【名】(醫) 脚氣(脚疾)

〔문〕 각기(脚氣) 【名】(醫) 다리·아랫배가 마비(癱瘓)되고 특히 두 다리가 부어 행보가 곤란한 병. 증세에 따라서는 다리가 붓지 아니하는 것도 있음. 脚疾. 脚痛.

〔큰〕 각기(脚氣) 【이】 ① (의) 다리 병의 한 가지. 백미(白米)를 주식(主食)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운 영양 실조증(營養失調症)으로 말초 신경(末梢神經)에 고장이 생기어, 특히 다리가 마비(癱瘓)되고 부으며, 무거워지고 저리는 동시에, 맥박이 빨라지며, 오줌 분량이 적어지고 변비증이 생긴. 원인은 확실하지 아니하나 비타민(Vitamin) 비(B)의 결핍(缺乏)으로 인한 것임. ② (한의) 습기(濕氣)에 상하여 다리가 붓거나 저리거나 하여 감각이 없어진 병.

‘각기’의 경우 『(총)조선어사전』은 다리의 병이라 간단히 설명한 것에 비해 『(문)조선어사전』은 각기의 일반적인 증상과 더불어 유형을 구분해 설명했다. 두 사전이 의학 분야 전문어로 표기한 반면 『큰사전』은 의학 전문어와 한의학 전문어로 항목을 나누어 설명했는데, 의학 전문어항목에서는 영양학적 원인을 밝히고 ‘비타민B’, ‘말초신경 이상’과 같은 서양의학의 용어를 활용해 설명했고, 한의학 전문어항목의 풀이에서는 한의학적 병인과 증상을 간략하게만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각기라는 병을 둘러싼 의학계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기는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병명으로서, 증상에 따라 습각기와 건각기로 구분된다. 한편 네덜란드 의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Beriberi는 19C 말 일본에서 ‘각기(脚氣)’로 번역되었고, 1912년 일본인에 의해 비타민B1 결핍이라는 원인이 밝혀졌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의학 고유의 병명이었던 ‘각기’는 차츰 서양의학 병명으로 인식되었다.⁹⁶⁾ 각기의 일반적인 증상과 건각기·습각기의 구분을 제시한 『(문)조선어사전』의 풀이에 비해 『큰사전』은 의학 전문어로서의 설명을 앞에 두고 병의 원인, 병리, 증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한의학의 설명을 비교적 간단하게 덧붙였다. 이는 『큰사전』이 편찬될 무렵 각기를 Beriberi의 번역어로 인식하였으며, 각기에 관해서는 서양의학의 병리론이 보편적 의학지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병명이 서양의학 병명의 번역어로 통용된 경우 『큰사전』의 편찬자들은 서양의학의 병명을 상위에 게재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양상은 점점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각기’ 항목에는 한의학과 관련한 설명 및 전문어 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⁹⁷⁾

96) 김종현, 안진희. 脚氣에 대한 考察 -Beriberi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4(4). 2021. pp.160-161.

97) 각기(脚氣) 『의학』 비타민 비 원(B1)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영양실조 증상. 말초 신경에 장애가 생겨 다리가 붓고 마비되며 전신 권태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각기병

〔총〕癆瘵(로채) 【名】(醫) 肺結核, 潮熱·盜汗·咯血·痰嗽·遺精·泄瀉の六症あり, 少年の際多くは瘵蟲のために發し, 往往一家を滅するに至る. (傳尸·傳注·로접).

〔문〕노채(癆瘵) 【名】(醫) 폐병·신경쇠약들의 총칭. 노접. 傳尸. 傳注.

〔큰〕노채(癆瘵) 【이】(한의) 말기(末期)의 폐결핵. (전시=傳尸. 전주=傳注)

‘노채’의 경우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은 의학 전문어로, 『큰사전』은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내용에 있어서는 『(총)조선어사전』의 경우 ‘폐결핵’이라 설명하면서도 ‘조열’, ‘도한’ 등 노채에 자주 보이는 6가지 증상들을 한의학의 증상 용어들을 사용해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총병의 일종이라는 점, 때때로 한 집안이 모두 전염된다는 점, ‘傳尸’, ‘傳注’과 동의어라는 점과 같은 상세한 설명을 남겼다. 이에 비해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은 동의어를 부기한 것을 제외하면 한의학과 관련된 풀이는 일체 제외하고 ‘신경쇠약’, ‘폐결핵’이라는 서양 의학의 병명을 대응하는 것에 그쳤다.⁹⁸⁾ 특히 『큰사전』의 이와 같은 설명은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한 것과 배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노채’에 관한 『큰사전』의 설명은 『표준국어대사전』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⁹⁹⁾

기존의 한의학 병증의 명칭을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되 점차로 서양의학의 질병명과 대응해 설명하는 방식은 ‘소갈증’¹⁰⁰⁾ 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90160&searchKeywordTo=3)

98) 개항 후 서양의학의 유입과 함께 한의학 병 개념이던 노채가 결핵과 동일시 된 경우는 최은경의 논문(최은경. 개항 후 서양의학 도입과 ‘결핵’ 용어의 변천. 의사학. 21(2). 2012. pp.227-250.)에서 찾아볼 수 있다.

99) 노채(癆瘵) 『한의』 말기에 이른 폐결핵. ≡ 전시, 전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85%B8%EC%B1%84>)

100) [총] 消渴症(소갈증) 【名】(醫) 渴して頻りに湯水等を欲する病症.

〔문〕소갈증(-증) (消渴症) 【名】(醫)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먹으나 오줌은 나오지 아니하는 병. ㊦여자의 요도림(尿道淋). 남자의 임질의 증세와 비슷하나 대개 심하지는 않다.

『(총)조선어사전』의 경우 ‘소갈증’에 대해 갈증에 해당하는 증상만을 설명하였으나 『큰사전』은 증상과 더불어 ‘당뇨병’이라는 병명을 대응하였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사전들이 편찬되었던 일체강접기 중후반에 들어 어느 정도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서의학연구회(東西醫學研究會)¹⁰¹⁾의 공식적인 계획을 통해 발간된 『동서의학요의(東西醫學要義)』(1925)의 목차를 살펴보면 동서 의학의 병명을 상하로 배치하였는데 ‘癆瘵(노채)’와 ‘肺結核(폐결핵)’, ‘消渴(소갈)’과 ‘糖尿病(당뇨병)’이 호응하는 병명으로 짝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²⁾

〔큰〕감기(感氣) 【이】(의) = 고빨.

〔큰〕감모(感冒) 【이】(의) = 고빨.

〔큰〕고빨 【이】(한의) 추위에 상하여 난 병. 체온(體溫)이 능히 강한 풍한(風寒)의 침노를 막아내지 못하여 생김.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오름. (수난. 수냉이. 시랭이. 감기. 감기=感氣. 감모=感冒. 외감=外感.)

한편 동서의학의 전문어를 구분한 『큰사전』에서는 동의어로 기록된 두 표제어의 전문어 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감기’와 ‘감모’의 경우 모두 ‘고빨’을 동의어로 기록했으나 ‘고빨’을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한 것과 달리 ‘감기’와 ‘감모’는 모두 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이와 비슷한 예로 ‘개창’은 한의학 전문어로서 ‘웁’과 동의어로 설명했으나, ‘웁’은 ‘웁벌레의 기생으로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병’이라 설명하고 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다.¹⁰³⁾

〔큰〕소갈-증[-증] (消渴症) 【이】(한의) 목이 말라서 물이 자주 먹히는 병. 당뇨병(糖尿病) 따위.

101) 1922년 한의계 유지들이 모여 회장 김성기(金性璵)를 중심으로 조직한 당시의 유일한 의생 단체이다. 한의학 학술 진흥과 한의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강습회 개최, 학술지 발행 등을 추진하였다. (강연석 외. 의사학. 경기도 고양시. 대성의학사. 2023. p.253.)

102) 都鎮羽. 東西醫學要義(再版). 京城. 漢城圖書株式會社. 1925. pp.2-12. 「目次」

103) [큰] 개선(疥癬) 【이】(의) = 웁.

〔큰〕개창(疥瘡) 【이】(한의) = 웁.

〔큰〕웁³ 【이】(의) 웁벌레의 기생(寄生)으로 인하여 생

‘감기’, ‘감모’, ‘고뿔’과 ‘개창’, ‘옴’이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의미의 차이가 전문어 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며, 이들이 기존에 사용되지 않다가 서양의학의 병명으로서 새로 만들어진 어휘도 아니다. 이는 앞서 ‘각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학 분야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던 어휘가 서양 의학적 의미를 덧입어 활용됨에 따라 전문 분야가 재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서양의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뿔’이나 ‘개창’ 같은 어휘들은 한의학 전문어로서 계속 남게 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6) 본초 관련 표제어

사전에 수록된 한의학 관련 표제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약재의 명칭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인삼, 계지, 갈근은 사전마다 차이를 보였다. 쓰임의 면에서는 한약재이지만, 그 자체로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풀이가 우선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했고, 식물 명칭과 약재로서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제어로 구분되어 있기도 했으며, 식물학적 표제어나 풀이 없이 약재로서의 명칭과 풀이만 실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

〔총〕 人蔘(인삼) 【名】 藥用人參. (仁蔘. 略, 蔘. 別稱, 地精. 三椏).

〔導〕 人蔘(人蔘) 【名】 (植) 오가과(五加科)에 붙은 속근초. 잎은 장상복엽(掌狀複葉) 꽃은 백색의 산형화서(繖形花序)로 피고 뿌리는 황백색 인형으로 생긴 유명한 약초. 산지는 경기도 개성(開城)·용인(龍仁) 평안도 강계(江界)·전라도 금산(金山)·충청도 충주(忠州)가 저명함. 지정(地精).

〔큰〕 人蔘(人蔘) 【이】 (식) 오갈피나무과(五加科)에 딸린 다년생 풀. 산에 저절로 나기도 하고, 밭에 재배하기도 하는데, 줄기의 길이가 60cm이며 뿌리는 방추근(紡錘根)임. 잎은 장병(長柄)이고 윤생(輪生)이며 다섯 개의 장상 복엽(掌狀複葉)인데, 작은 잎은 난형(卵形)임. 꽃은 황록색(黃綠色)의

오판화(五瓣花)가 산형 화서(繖形花序)로 피. 붉은 빛의 납작한 구형(球形)의 장과(漿果)가 열림. 뿌리는 가장 중요한 강장제(強壯劑)로 유명함. 산에서 난 것은 산삼(山蔘), 밭에 재배한 것은 가삼(家蔘)이라 함. ② (한의) 인삼의 말린 뿌리. 원기(元氣)를 돕는 온성(溫性)을 가진 약으로 맛이 달금쌈쌀하고 향긋한데, 원기 허약(虛弱)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병에 유효(有效)하고, 소화불량(消化不良), 설사(泄瀉), 현운(眩暈), 두통(頭痛), 피로(疲勞) 등에 특효(特效)가 있음. 산삼(山蔘)은 얻기 어려우므로 보통 가삼(家蔘)을 씀. (삼아=三椏. 지정=地精. Panax Ginseng C.A.Neyer. = 인진). (준말:삼=蔘. 옛말:심).

‘인삼’의 경우 『(총)조선어사전』은 ‘약용인삼(藥用人蔘)’이라는 점과 이명을 간략히 기록했으며, 약학 전문어로 표기했다. 『(문)조선어사전』의 경우 식물 분류명, 꽃의 색과 모양, 뿌리의 색, 유명 산지를 기록했으며, 전문어 범주를 식물로 표기하였다. 『큰사전』의 풀이는 이전 사전들에 비해 정보의 양이 크게 늘었다는 점 외에도 약재의 식물학적 특징과 한의학 적 특징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서술한 점이 눈에 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식물학적 분류와 산지를 제시한 뒤 줄기, 뿌리, 꽃, 잎, 열매의 세부 형태와 재배 환경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당 항목을 식물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한약재로서의 효과와 주치증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말미에는 인삼의 이명, 라틴어 학명, 일본어 명칭을 첨부하였는데, 성격상 첫 번째 항목에 가까운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큰사전』에 수록된 약재 관련 표제어 모두가 인삼과 같은 방식으로 풀이된 것은 아니며 ‘인삼’, ‘감초’, ‘창포’ 등 일반에 많이 알려진 약재들에 한해 식물과 한의학의 전문어 항목을 세분해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약재의 전문 영역을 구분해 서술한 경우에는 식물 분야의 전문어가 한의학 전문어의 풀이보다 우선하였으며, 설명의 양이나 세밀함 역시 식물 전문어 쪽이 우세하다. 어휘가 지시하는 식물로서의 정보가 한약재로서의 정보에 비해 더 중요하

기는 전염성(傳染性) 피부병(皮膚病). …… (개선=疥癬. 개창=疥瘡. 충개=蟲疥).

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으며, 『큰사전』이 식물 분야의 해설에 공을 들였다는 사실은 「범례(凡例)」에서 식물 전문어의 라틴어, 일본어 학명을 일일이 제시하고 삽화를 통해 설명을 보충했음을 강조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¹⁰⁴⁾ 식물학 분야의 풀이를 담당하는 것은 ‘큰사전 전문어에 협조한 이들’의 명단에서 식물학을 담당했던 이덕봉(李德鳳)으로 보인다.¹⁰⁵⁾ 그는 1,944종의 식물명을 우리말로 정리하고 국제 학명 및 일본어 명칭을 대조해 기록한 『조선식물향명집』을 저술하였으며¹⁰⁶⁾ 조선어학회의 정기 간행물인 『한글』에 식물명에 관한 논설을 게재하기도 했다.¹⁰⁷⁾

[큰] 계수나무(桂樹-)【이】(식) 장과(樟科)에 딸린 상록 교목(常綠喬木). 중국의 남방과 동인도(東印度)에서 남. 특이(特異)한 방향(芳香)이 있고, 높이가 10-15cm, 잎은 넓은 피침형(披針形) 혹은 긴 타원형인데, 두껍고 세 줄의 엽맥(葉脈)이 있으며, 센 털이 있음. 대황백색(帶黃白色)의 작은 꽃이 원추 화서(圓錐花序)로 뿜. 가지는 “계지(桂枝)”, 껍데기는 “계피(桂皮)”라 하여 약재(藥材)로 씀. (Cinnamonus cossia, Blume. 케이). (준말:계수).

[큰] 계지(桂枝)【이】(한의) 계수나무의 잔 가지. 감기에 해열제(解熱劑)로 쓰는 약. 땀이 나면서 열이 풀리지 아니하는 때에 쓰며, 지절통(肢節痛)과 복통(腹痛)에도 씀.

『큰사전』은 인삼의 경우와 달리 원식물의 명칭과 약물로서의 명칭이 서로 다른 경우 표제어를 구별하

고 내용에 따라 전문어 표기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계수나무’처럼 식물을 설명한 경우 식물 전문어인 ‘(식)’으로 표기하였으며, ‘계지’처럼 특정 부분을 약재로 활용하거나 주된 사용 목적이 약용일 때에는 ‘(한의)’로 표기하였다.¹⁰⁸⁾ 식물 전문어의 경우 식물학적 분류, 서식지, 형태, 학명 등을 설명했으며, 한의학 전문어의 경우 기원 식물, 성질, 효능 등을 설명했는데, 앞선 두 사전¹⁰⁹⁾에 비하면 약물의 주치, 효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총] 葛根(갈근)【名】(藥) 葛の宿根, 多量の澱粉を含み, 解熱・胃腸病等の藥に用ふ.

[문] 갈근(葛根)【名】(藥) 칩뿌리. 해열·위장병(解熱・胃腸病)등의 약재로 씀. 乾葛.

[큰] 갈근(葛根)【이】(한의) 칩의 뿌리. 상한(傷寒)에 발한(發汗)하는 약인데, 갈증(渴症), 두통, 요통, 항강증(項強症)이 있을 때 씀. (건갈=乾葛)

‘갈근’의 경우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에서는 약학 전문어로 표기하였으나 『큰사전』에서는 한의학 전문어로 구분하였다. 전문어 표기의 변화는 풀이의 차이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사전이 갈근의 효능과 주치를 해열, 위장병으로 설명한 것에 반해 『큰사전』에서는 상한, 발한, 항강증 등 한의학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전문어 표기를 한의학으로 변경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한편 『큰사전』이 제시한 ‘갈근’의 주치증은 단일 약물보다는 그것이 포함된 대표처방인 갈근탕의 효능에 더 가깝다. 앞서 살펴본 ‘계지’의 설명이 계지탕의 주치증을 포함하는 것도 이와 흡사하다. 위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볼 때 『큰사전』은 한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의 참여를 통해 본초 관련 표제어의 풀이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처방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104) 「범례:7.해석의 방식」 “5. 식물 동물의 이름들은 자칫하면 그릇 알기 쉬운 일이 많으므로, 이에 정확한 대조(對照)에 의하여, 라틴말(Latin)의 학명(學名)과 일본의 학명까지 일일이 붙여놓음.”

105) 한글학회50돌 기념사업회. 한글학회50년사. 서울. 한글학회. 1971. p.270.

106) 『조선식물향명집』의 광고가 조선어학회가 발행한 잡지인 『한글』의 광고면(朝鮮語文研究優良書籍)에 실린 바 있다.(한글학회. 朝鮮語文研究優良書籍. 한글. 82. 1940. p.445.)

107) 李德鳳. 朝鮮産植物의 朝鮮名考. 한글. 제41호. 1937. pp.312-315.

108) 광물성 약제는 광물 분야 전문어를 의미하는 ‘(광)’, 동물성 약제는 동물 분야 전문어를 의미하는 ‘(동)’으로 표기하였다.

109) [총] 桂枝(계지)【名】(藥) 桂樹の細枝, 藥用に供す. [문] 계지(桂枝)【名】(藥) 계수(桂樹)의 잔 가지. 약재로 씀.

로 약재의 특성을 기술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7) 처방 관련 표제어

『(중)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이 한약 처방에 관한 표제어를 거의 수록하지 않은 것에 비해 『큰사전』은 많은 수의 처방을 수록하였다. 『큰사전』에 수록된 처방들은 모두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되었으며,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해 효능이 설명되었다.

[큰] 승기-탕(承氣湯) 【이】 (한의) 이증(裏證)에 대소변(大小便)을 통하게 하여 열을 내리게 하고 섬어(謔語), 조열(潮熱), 구갈(口渴) 따위를 없애는 약. 대승기탕(大承氣湯), 소승기탕(小承氣湯), 조위 승기탕(調胃承氣湯) 따위가 있음.

[큰] 대-승기탕(大承氣湯) 【이】 (한의) 승기탕(承氣湯) 중에 가장 힘이 강한 약.

[큰] 소-승기탕(小承氣湯) 【이】 (한의) 승기탕(承氣湯)의 한 가지. 상한(傷寒), 이증(裏症)의 좀 가벼운 정도에 씀.

[큰]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 【이】 (한의) 승기탕의 한 가지. 상한(傷寒), 이증(裏症)으로 오줌이 붉고, 변비(便秘)가 되고, 열이 높고, 헛소리하는 증세에 씀.

대표적으로 ‘대-승기탕’, ‘소-승기탕’, ‘조위-승기탕’을 들 수 있으며, 그들의 상위 개념인 ‘승기-탕’까지 모두 한의학 전문어로 구분해 수록했다. 유사한 예로 ‘정기-산’, ‘곽향정기산’, ‘불환금 정기산’이 있으며, 사전의 편찬 당시 정기산류와 승기탕류가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 인식되거나 활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¹⁰⁾ 풀이에 담긴 주치증은 제법 상세한 편이며, ‘상한’, ‘외감’, ‘리증’, ‘섬어’, ‘조열’ 등

110) [큰] 정기-산(正氣散) 【이】 (한의) 위장(胃腸)을 범한 외감(外感)을 다스리는 탕약. 곽향 정기산(藿香正氣散), 불환금 정기산(不換金正氣散) 따위.

[큰]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이】 (한의) 정기산(正氣散)의 하나.

[큰] 불환금 정기산(不換金正氣散) 【이】 (한의) 정기산(正氣散)의 한 가지. 위장(胃腸)을 범한 외감(外感)을 다스리는 탕약(湯藥).

한의학적 개념만을 통해 설명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인체 구조, 생리, 병증, 본초 등의 표제어 풀이에 서양 학문에서 유래한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었던 것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처방은 다른 학문 분야를 통한 이차적 해석이 불가능한 한의학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큰] 육미-탕(六味湯) 【이】 (한의) 숙지황, 산약, 산수유, 백복령, 목단피, 택사 들로 된, 가장 흔히 쓰는 보약.(지황탕=地黃湯)

[큰] 수토-탕(水土湯) 【이】 (한의) 어린 아이의 열이 높은 감질(疳疾)에 쓰는 약.

『큰사전』에 실린 일부 처방 관련 표제어들은 효능, 주치와 더불어 처방에 포함된 약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육미-탕’, ‘사군자-탕’¹¹¹⁾, ‘쌍화-탕’¹¹²⁾, ‘십전-대보탕’¹¹³⁾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들은 가장 대표적인 보제(補劑)이며 동시에 성질이 편중되지 않은 처방들로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일반 대중들이 활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육미-탕’의 경우 구체적인 효능조차 언급하지 않고 ‘가장 흔히 쓰는 보약’이라고만 설명했는데, 몸이 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육미지황환(탕)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된 기성약(매약)의 하나로 여러 제약회사에서 판매하였으며, 기성약을 광고한 신문들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점이¹¹⁴⁾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언급한 처방들이 전통적으로 자주 활용되어

111) [큰] 사군자-탕(四君子湯) 【이】 (한의) 인삼(人參), 백출(白朮), 백복령(白茯苓), 감초(甘草)를 한 돈 중씩 조합한 탕약. 원기(元氣)와 소화(消化)를 돕는 데 씀.

112) [큰] 쌍화-탕(雙和湯) 【이】 (한의) 노역(勞役), 방사(房事) 등으로 인하여 생긴 피로(疲勞)를 회복하고 허한(虛汗)을 거두는 탕약. 백작약(白芍藥), 숙지황(熟地黃), 황기(黃芪), 당귀(當歸), 천궁(川芎) 따위가 그 주재(主材)가 됨.

113) [큰]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이】 (한의) 원기를 돕는 약. 팔물탕(八物湯)에다 황기(黃芪), 육계(肉桂)를 더함.(준말:대보탕=大補湯)

114) 황지혜, 김남일. 일제강점기 매약을 통해 본 한약의 제형 변화와 새로운 한약 처방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20. 33(1). p.102.

은 것에 반해, ‘수토-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열람하는 의서인 『동의보감』이나 『방약합편』에서 찾아볼 수 없고, 중국의 역대 처방을 정리한 문헌인 『中醫方劑大辭典』의 목록에도 부재하는 처방이다.¹¹⁵⁾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수토탕의 최초 기록은 『큰사전』의 편찬 시기와 가까운 시기에 출간된 『의감중마(醫鑑重磨)』(1922)이며¹¹⁶⁾ 소아과 처방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나 주치에는 차이가 있다.¹¹⁷⁾ 당시 수토탕의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1942년 『태평양의 약시보』에 실린 광고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수토탕을 ‘소아강장제(小年強壯劑)’로 소개하면서 그 우수성을 자랑했다.¹¹⁸⁾ 이처럼 기성약으로 판매되고 광고를 통해 일반에 알려진 것이 처방이 만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전에 반영될 수 있었던 이유라 짐작할 수 있다.

『큰사전』에는 상당한 수의 처방들이 수록되었으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백호탕, 소시호탕, 소청룡탕, 오령산 등 『상한론』에서 유래한 처방들이 다수 수록되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인 계지탕, 마황탕은 빠져있으며, 소청룡탕은 포함되었으나 대청룡탕은 제외되었다. 이에 비해 구미강활탕, 삼소음, 승마갈근탕, 십신탕, 폐독산, 갈근해기탕 등의 외감처방들이 수록되었는데, 이들은 『동의보감』을 비롯한 조선 의서에 자주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계지탕과 마황탕에 비해서 오히려 중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국내에서 빈용되던 처방들을 위주로 표제어를 구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115)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116) 『동양의학대사전』(동양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6).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27.)에는 水土湯이 처음 제시된 문헌을 李元世의 『新方新編』이라 하였으나, 그의 스승인 石谷 李圭峻이 저술한 『醫鑑重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7) 李元世 編著. 素問學會 新編.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338. “治胎毒, 頭面或全身發疥瘡, 瘡痒出膿水.”(小兒·雜病)

118) 황지혜, 김남일. 일제강점기 맥약을 통해 본 한약의 제형 변화와 새로운 한약 처방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20. 33(1). p.107. “本劑는 肥兒丸에 六味를 加한것으로 八九才 小年の 補才藥으로 第一이다.”

8) 경락·침구 관련 표제어

경락, 혈위, 침구에 관한 용어 역시 세 개의 사전에서 표제어로 수록하고 풀이하였는데, 특히 『큰사전』에 실린 몇몇 표제어의 경우 그 설명이 여타의 표제어에 비해 한의학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한 편이었다.

〔총〕 經絡(경락) 【名】 血液の循環する脈管.

〔문〕 經絡(經絡) 【名】 혈액이 돌아다니는 맥관.

〔큰〕 經絡(經絡) 【이】 (한의) 오장(五臟)과 육부(六腑)에 생긴 병이 몸 거죽에 나타나는 자리. 이 경락의 적당한 자리에 침(鍼)이나, 뜸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刺戟)을 하면, 그 경락에 관계된 장부(臟腑)의 병이 낫게 됨. 그 자극하는 부위를 경혈(經穴), 또는 혈(穴)이라고 함. 경락에 정경(正經) 열 둘이 있고 기경(奇經) 팔맥(八脈)이 있음.

〔큰〕 기경(奇經) 【이】 (한의) 인체(人體) 각 기관의 활동을 연락, 조절(調節), 통제(通劑)하는 작용에 관계된 경락. 독맥(督脈), 임맥(任脈), 충맥(衝脈), 대맥(帶脈), 음유맥(陰維脈), 양유맥(陽維脈), 음교맥(陰蹻脈), 양교맥(陽蹻脈) 등의 여덟이므로 기경팔맥이라고 함. (참고: 경락=經絡).

먼저 ‘경락’의 경우 『(총)조선어사전』은 일반 명사로 표기하고 혈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며, 『(문)조선어사전』은 이를 그대로 옮겼다. 이러한 풀이는 경락의 본래 의미와 동떨어져 있는데, ‘경락’을 ‘맥’과 동일어로 인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반해 『큰사전』은 ‘경락’을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으며 정의, 활용, 종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경’을 함께 수록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풀이하였다. ‘경락’과 ‘기경’에 대한 『큰사전』의 풀이는 한의학 전문가가 참여한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의학 전문어 감수를 담당했던 조현영은 그의 대표 저서인 『통속한의학원론(通俗韓醫學原論)』에서 ‘경락’을 ‘내부 장기의 변화가 체표에 나타나는 반응점’이라 설명했는데,¹¹⁹⁾ 진단적 의

119) 趙憲泳. 通俗韓醫學原論. 서울. 學林社. 1990. p.236.

미를 강조했다다는 점에서 『큰사전』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

『큰사전』에는 ‘경락’과 ‘기경’ 외에도 ‘간경’, ‘심경’, ‘폐경’, ‘신경’이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지만 “염통에서 갈려나온 경락(經絡)” 수준의 간략한 풀이에 그쳤으며, ‘기경’의 풀이에 언급된 ‘독맥’, ‘충맥’, ‘임맥’, ‘대맥’에 관한 별도의 표제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 中脘(중완) 【名】 心窩.

[문] 중완(中脘) 【名】 명문.

[큰] 중완(中脘) 【이】 (한의) 침구(鍼灸)를 놓는 혈(穴)의 하나. 위(胃)가 있는 자리.

세 사전은 모두 ‘혈(穴)’을 표제어로 수록하였으며 침을 놓는 자리와 묘를 쓰는 자리의 두 가지 의미로 풀이했다.¹²⁰⁾ 그중 『큰사전』은 침 자리로 풀이한 항목을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면서도 ‘못자리’를 ‘혈’의 대표 의미로 보아 풀이 항목의 첫 번째에 두었다.¹²¹⁾

표제어로 수록된 구체적인 혈명(穴名)도 있는데 ‘합곡’, ‘삼리혈’, ‘중완’, ‘백회혈’ 등이다. 그중 ‘중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전의 사전들에서 명치 부위를 가리키는 말로 풀이되었으나¹²²⁾ 『큰사전』에서는 침구에 사용하는 혈위로 설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이와 달리 ‘백회혈’¹²³⁾은 세 사전 모두에 수록되었으나 모두 인체 부위를 가리키는 어휘로 풀이되었으며, 『큰사전』 역시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지 않았다. ‘사관’¹²⁴⁾은

유일하게 혈위의 조합을 지칭하는 표제어로 객관, 관격을 치료하는 효과를 위주로 풀이하였다.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에 실린 관련 표제어의 종류가 대부분 같은 것에 비해 ‘구미(鳩尾)’¹²⁵⁾, ‘회음(會陰)’¹²⁶⁾, ‘합곡’¹²⁷⁾은 『큰사전』에서 새롭게 등재한 것들이다. 그러나 합곡을 제외하면 모두 부위를 설명하는 말로 풀이하여 침이나 뜸을 쓰는 자리라는 설명이 없고 한의학 전문가가 아닌 생리, 생물의 전문어로 표기하였다.

[총] 三里穴(삼리혈) 【名】 鍼灸所の名稱, 膝下の内側の門處.

[문] 삼리혈(三里穴) 【名】 무릎 아래 안쪽에 있는 침을 놓는 오목한 곳.

[큰] 삼리혈(三里穴) 【이】 (한의) 사람의 몸에 침을 놓거나 또는 뜸질하는 자리의 하나. 곧 다리 오금의 오목한 곳.

‘삼리혈’의 경우 세 사전 모두 침과 뜸을 사용하는 자리로 풀이하였으나 앞선 두 사전에서는 일반 명사였다가 『큰사전』에서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되었다. ‘삼리혈’의 위치를 설명한 부분에서 『(총)조선어사전』은 ‘膝下の内側(무릎 아래의 내측)’으로 잘못 기록하였는데 이를 『(문)조선어사전』이 그대로 따랐다. 위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시한 『큰사전』은 ‘오금의 오목한 곳’이라는 엉뚱한 설명을 남겼다. 이는 앞선 사전의 초보적 오류를 답습한 결과로, ‘경락’과 ‘기경’의 정확한 풀이와 달리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120) [총] 穴(혈) 【名】 ①鍼灸なすうるつぼ ②地相ふき墓地
[문] 혈(穴) 【名】 ①침을 놓는 몸속에 있는 구멍. ②산소를 써서 그 집에 경사가 있을 묘지.

[큰] 혈(穴) 【이】 ① (민) 풍수지리의 용맥(龍脈)의 정기(精氣)가 모인 자리. ② (한의) 침(鍼)을 놓을 올바른 자리.

121)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큰사전』의 예를 따른다.

122) 『(문)조선어사전』에서 중완과 동의어로 설명된 ‘명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가슴뼈 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으로 되어있으며, “心窩”의 동의어로 표기하였다.

123) [총] 百會穴(백회혈) 【名】 函門.

[문] 백회혈(百會穴) 【名】 솟구멍.

[큰] 백회혈(百會穴) 【이】 (생) 정수리의 솟구멍 자리.

124) [총] 四關(사관) 【名】 急性霍亂をしたる時應急手當そ

して四肢の關節に鍼を打つ箇所.

[문] 사관(四關) 【名】 급하게 관격이 되었을 때 통기를 시키기 위하여 사지의 관절에 침을 놓은 곳.

[큰] 사관(四關) 【이】 (한의) 급한 객관(霍亂)이 되었을 때 통기(通氣)를 하기 위하여 손과 발의 네 군데의 관절(關節)에 침을 놓는 곳.

125) [큰] 구미(鳩尾) 【이】 (생) = 명치.

126) [큰] 회음(會陰) 【이】 (생) 사람의 사타구니의 음부(陰部)와 항문(肛門)과의 사이.

127) [큰] 합곡(合谷) 【이】 (한의) 침을 놓는 자리의 하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과의 사이.

- [총] 뜸【名】「肉灸(육구)に同じ.
[문] 뜸【名】썩을 부벼서 살 위에 놓고 불을 때어 그 열을 몸 속에 들여보내는 치료법. 肉灸.
[큰] 뜸²【이】(한의) 병을 다스리는 한 방법. 약썩을 비벼서 자질구레하게 빻어 어떠한 혈(穴)에 놓고 불을 붙여 살을 뜨는 일. (구=灸②).

검토한 사전들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 도구라 할 수 있는 ‘침’과 ‘뜸’을 표제어로 등록하였다. 세 사전에서 ‘침’은 혈을 찔러 병을 다스리는 바늘로 거의 흡사하게 풀이하였으며 모두 일반 명사로 표기했다.¹²⁸⁾ 이에 비해 ‘뜸’은 이전의 두 사전에 전문어 표기가 없으나 『큰사전』은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였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침’을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단순 오류로 생각된다. ‘뜸’에 관한 풀이는 사전마다 차이가 있는데, 『(문)조선어사전』이 “열을 몸속에 들여보낸다”라는 한의학적 작용기전을 언급했으나 『큰사전』은 이러한 설명 없이 뜸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 [총] 三稜針(삼릉침)【名】鍼醫の用ふ三稜の鍼.
[문] 삼릉-침(三稜鍼)【名】침의(鍼醫)가 쓰는 세모진 침.
[큰] 삼릉-침(三稜鍼)【이】(한의) 침의(鍼醫)가 쓰는 세모진 침.

‘침’과 ‘뜸’뿐 아니라 삼릉침, 참침¹²⁹⁾, 대침¹³⁰⁾과 같은 침의 종류 중 일부도 표제어에 포함되었다. 세

128) [총] 鍼(침)【名】鍼治に用ふる針.
[문] 침(鍼)【名】몸의 혈(穴)을 찔러 병을 고치는데 쓰는 바늘.
[큰] 침(鍼)【이】사람의 몸에 있는 혈(穴)을 찔러서 병을 다스리는 데에 쓰는 바늘.
129) [총] 鑿鍼(참침)【名】鍼の一種、頭大に末細し.
[문] 참침(鑿鍼)【名】대가리가 크고 끝이 썩 뾰족한 침.
[큰] 참침(鑿鍼)【이】침의 한 가지. 대가리가 크고 끝이 뾰족함.
130) [총] 大鍼(대침)【名】尖端の稍圓き鍼、長さ周尺の四寸あり.
[문] 대침(大鍼)【名】끝이 조금 둥글고 길이가 긴 침.
[큰] 대침(大鍼)【이】끝이 조금 둥근 침(鍼). 길이가 주척(周尺)으로 네 치가 됨.

사전에 실린 침의 종류가 일치하고 풀이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아 『(총)조선어사전』의 내용이 이후의 사전에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풀이를 살펴보면 침의 한 종류라는 점을 밝히고 그 모양을 설명하였으며, 모양에 대한 묘사는 비교적 정확하다. 앞선 두 사전에서는 이들을 모두 일반 명사로 표기하였고, 『큰사전』은 ‘삼릉침’만을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여 전문어 표기의 일관성이 낮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락·침구 관련 표제어의 종류와 설명은 기본적으로 『(총)조선어사전』에서 제시한 것을 뒤의 사전들이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특히 『큰사전』에서는 관련 어휘 중 다수를 한의학 전문어로 구분하였으며 ‘경락’, ‘기경’과 같이 새롭게 표제어를 설정하고 한의학적 의미를 전문적으로 풀이한 경우도 존재했다. 이전에 살펴본 다른 종류의 표제어들에 비하면 후에 편찬된 사전으로 갈수록 풀이가 덜 ‘근대화’된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이는 경락·침구에 관한 한의학 고유의 용어들이 서양 학문의 지식을 통해 해석되기 어렵고 그것들의 실용적 가치가 여전히 발휘되고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9) 의서 관련 표제어

한의학 분야의 의서 역시 표제어에 포함되었다. 『큰사전』은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에는 수록하지 않았던 의서를 표제어로 수록하기도 하였으며 서명을 뜻하는 ‘(책)’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의학의 대표 문헌이라 여겨지는 서명이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¹³¹⁾ 실려 있는 표제어 간에도 설명의 상세함에 차이가 커서 그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살펴본 의서 관련 표제어는 ‘동의보감’, ‘제증신편’, ‘언해태산집요’였는데, 그 가운데 ‘언해태산집요’는 풀이가 무척

131) 『황제내경』, 『소문』, 『영추』, 『상한론』, 『금궤요략』, 『천금방』, 『화제국방』, 『만병회춘』, 『의학입문』 등의 주요 중국 의서와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의림촬요』, 『신찬벽은방』, 『침구경험방』, 『마과회통』, 『방약합편』, 『동의수세보원』 등의 주요 한국 의서들을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았다.

상세한 편이다.

[큰]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 【이】(책) 조선(宣祖) 때 허 준(許浚)의 지은 의서(醫書). 태산(胎産)에 관한 모든 증세(症勢)와 약방문(藥方文)을 기록(記錄)하고 한글로써 해석(解釋)을 넣은 책으로, 선조(宣祖) 41년 무신(戊申)에 내의원(內醫院)에서 간행(刊行)함. 첫째 구사(求嗣)로부터 시작되어 남녀(男女)의 정력(精力)을 강건(剛健)하게 하는 약방문을 설명(說明)하고, 다음으로 잉태(孕胎)에 옮기어 임신(妊娠) 중의 모든 증세와 약방문, 산전(産前)의 모든 증세와 약방문과 임신 예비 약물(臨産豫備藥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산시(産時)의 방위(方位), 피금일(避禁日) 따위를 쓰고, 최후(最後)에는 부록(附錄)과 초생아(初生兒)의 구급법(救急法)을 더 붙이었음. 한 책.

『언해태산집요』는 특정 분과의 의서이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문헌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간행 시기, 목차구성과 내용까지 기술하여 나머지 두 의서에 비해서 매우 상세하게 풀이되어 있다. 한편 동일하게 허준의 저작이면서 언해본인 『언해두금방』이나 『언해두창집요』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우리나라 의서인 『의방유취』, 『향약구급방』, 『방약합편』 또한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았다. 또한 의서는 표제어로 수록하였으나 허준, 강명길 등의 저자는 별도의 표제어를 두지 않았다.

IV. 고찰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주요 우리말 사전의 편찬 과정과 한의학 전문가 표기의 변화를 확인하고, 한의학 관련 표제어의 종류와 풀이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한의학 관련 표제어의 선정과 설명에 나타난 특징 및 시기에 따른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를 시대적 상황과 겹쳐봄으로써 일제강점기 지식인 계층이던 사전 편찬자들의 인식과 그들이 수집한 당대 어휘들에 담겨 있는 당시 한의학의 상황을 미루어 살펴보았다.

1. 한의학 관련 표제어의 일관성 부족

살펴본 한의학 표제어들 중에는 『(총)조선어사전』에 수록된 이후 두 사전들에서 반복되는 경우, 『(총)조선어사전』에는 없었으나 이후의 사전들에 수록된 것, ‘심기’나 ‘허증’의 예에서처럼 『(총)조선어사전』에 수록하였으나 『(문)조선어사전』에는 없고 『큰사전』에는 수록된 것, 두 사전에는 모두 없으나 『큰사전』이 새로 추가한 것들이 모두 있었다. 표제어가 동일하게 수록된 경우 이전 사전의 풀이까지 그대로 따르기도 했지만, 풀이의 내용이 변하거나 추가된 경우가 있으며, 설명이 한의학의 이론과 부합하고 구체적인 어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표제어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한편 사전에 실린 표제어의 선정에도 일관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분야별로 사전에 포함된 표제어를 살펴봤을 때, 그들이 한의학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갖고 있거나, 또 다른 기준에서 납득할 만한 일관된 특성을 찾을 수 없었다. 예컨대 같은 범주 안에서 다뤄지는 개념들 가운데 일부만 실려 있거나, 의서 가운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서는 대부분 누락되어 있었으며, 처방 관련 표제어에서도 선정된 표제어가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었는지 추측하기 어려웠다. 다만 의서나 처방의 경우, 당대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거나 접근하기 용이한 것들이 선정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 편찬 과정에서 한의학 표제어들이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조현영 외에 알려지지 않은 한의학 관련 전문가는 누구였으며 어느 정도로 편찬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표제어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풀이 또한 편차가 크다. 여기에는 오류가 반복되는 경우와 설명이 충실하게 수정·보충된 경우가 모두 있다. 오류가 반복된 전형적인 예로 ‘삼리혈’을 들 수 있는데, 위치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 아니라 오류가 더욱 심해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큰사전』에 실린 한의학 전문어 가운데 잘못된 설명의 다수가 『(총)조선어사전』과 『(문)조선어사전』의 것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며, 이를 통해 사전 간의 수용

관계 및 사전 편찬 과정에서 한의학 전문가의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표제어의 풀이가 이전의 사전에 비해 충실하게 이뤄진 대표적인 예로는 ‘정기’, ‘명문’, ‘경락’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표제어가 신학문에 대응되는 것이 없는, 한의학 고유의 개념인 점과 함께 한글학회에서 공식적으로 한의학 분야 전문 자문위원이라고 밝힌 조현영의 자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에 포함된 표제어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풀이에 오류가 반복되거나 풀이에 담긴 지식의 성격에도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이유로는 『(문)조선어사전』의 경우 어휘의 수집과 사전 집필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문세영 개인의 힘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10년에 걸쳐 발간된 『큰사전』의 경우에는 조선어학회 사전, 한국전쟁과 같은 시련을 겪으며 집필진들이 작업에서 이탈하거나 원고와 자료가 소실되는 등 안정적으로 편찬 작업을 이어 나가기 어려웠던 만큼, 수집된 어휘와 풀이가 온전히 사전에 실리지 못했거나 출간된 권별로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 의료제도의 변화가 한의학 관련 표제어에 미친 영향

앞서 의료제도와 관련된 표제어 가운데 의료인의 신분, 전문 인력, 의료기관에 관한 것을 살펴본 결과, 사전마다 큰 차이가 보였다. 먼저 『(총)조선어사전』의 경우, 대부분의 새로운 의료 법규가 발표되기 전에 어휘 수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규가 영향을 미치지 이전의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문)조선어사전』과 『큰사전』에서는 명칭, 면허, 허가, 업무 범위, 성별 등 제도적 요소가 포함된 표제어와 풀이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전별 표제어 유무의 차이는 사전의 편찬 작업 중 어휘 수집 시기와 의료 법규의 발표 시점 간의 선후관계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일반화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지 여부는 풀이 내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으로 볼 수 있다. 이후의 두 사전과 달리 『(총)조선어사전』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불어 가까운 시기의 법령과 관직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했던 『(총)조선어사전』의 편찬 방침¹³²⁾ 역시 새로운 의료 법규의 반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제는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그들의 통치 이념에 걸맞은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였다. 이는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은근히 일어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법령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빠르고 강압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의료에 관한 법령의 변화도 조선 사회의 주류 의학이던 한의학이 아닌 일제의 주류 의학, 다시 말해 ‘근대 의학’인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정립되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이나 의료가 실천되는 기관의 정의 혹은 명칭이 규정되었다. 총독부가 한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수립한 의생 제도의 경우에서 보듯, 통치 세력에 의한 제도적 변화는 즉각적으로 현장에 작용하였고, 사전에 실린 표제어와 풀이에도 그 변화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큰사전』의 한의학 전문 분야 생성

『(총)조선어사전』, 『(문)조선어사전』, 『큰사전』은 앞선 사전을 뒤의 사전이 선택 수용하면서 뒤로 갈수록 어휘의 양과 종류가 방대해졌다. 앞의 두 사전에는 한의학 전문어의 구분이 없지만 『큰사전』에 이르러서는 한의학 전문어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의 수가 총 1,750개로 의학과 약학의 전문어를 합친 수보다도 많다. 이는 갈수록 수집된 표제어가 누적, 보충됨에 따라 절대적인 수가 증가한 까닭도 있지만, 한의학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 안에서 존재론적 토대를 공유하는 만큼 다른 전문어에 비해 관련 어휘가 많다는 특징에 기인하기도 한다.

의사학적 관점에서 『큰사전』이 다른 사전과 구분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한의’라는 전문 분야가 새로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두 사전에서 한

132) 「凡例」 “……近時の法令語及官職名は概ね之を加へす”

의학을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다가 『큰사전』에 이르러 한의학 분야를 생성하고 전문어를 분류한 기준은 당시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오랜 시간 조선에서 주류 의학이던 한의학이 근대에 이르러 유입된 서양의학과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한의학이라 규정했으며, 한의학의 범주를 어디까지라고 보았는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큰사전』에서는 표제어를 한의학 전문어로 표기하면서도 풀이는 다른 근대학문의 개념이나 용어로 치환하여 설명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생리, 병리, 병증 등의 표제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해당 개념이 한의학의 범주에 속한다는 인식은 유지되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 즉 생체관이나 신체관 등은 변화하는 중이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경락, 맥상, 처방과 같이 개념 자체가 서양의 것으로 설명되거나 대체되기 어려운 경우 표제어와 풀이 모두 한의학 고유의 것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 앞선 경우와 대비했을 때 편찬자들의 한의학 용어 풀이 기준이 표제어의 서양학문 안에서의 대응 여부에 달려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의 편찬 의도와 그 안에 포함된 한의학 용어를 다룬 방침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서로 일치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조선이 강압적으로 일제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미뤄봤을 때, 민족 고유의 것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말과 한의학의 처지가 유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들을 살펴본 결과, 표제어를 구분, 선정, 풀이하는 과정에서 한 의학을 민족 의학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특별한 의도는 엿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한 의학을 구학문의 일종으로 여겨 당대 지식인이었던 편찬자들이 최신의 존재론을 통해 개념을 번역하고자 노력한 모습이 더 잘 드러났다. 다시 말해 한의학 전문어의 구분은 어휘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히고자 노력한 학술적 결과라 볼 수 있으며, 민족의 말과 글을 보존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신학문(新學問)을 통한 한의학 전문어 풀이

『큰사전』의 한의학 전문어를 살펴본 결과, 어휘의 활용이 신학문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신학문의 용어로 인식하여 전문어 분류 자체를 재설정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학문의 개념과 설명 방식을 통해 풀이하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침, 맥, 처방, 의서 등 한의학 외의 학문에서 활용되지 않는 고유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 분류와 풀이를 한의학적 언어로 한정했다. 다른 사전들에는 없던 ‘한의’ 전문어를 별도로 구분한 『큰사전』의 이 같은 한의학 전문어의 취급 방침에는 한 의학을 서양에서 유입된 근대 학문들과 구분 짓는 모습이 보인다. 다시 말해 한 의학을 근대학문의 보편성에서 벗어난 특수한 분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으며, 한의학 전문어 안에서도 ‘근대화’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고유의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인식 또한 엿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삼초’의 풀이에서 “수분(水分)의 배설(排泄)을 말았다 함.”이라 하여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한 것은 근대화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통 지식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은 한의(漢醫)와 양의(洋醫)를 ‘옛날 의사(舊醫)’와 ‘새로운 의사(新醫)’로 대비한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1910년대 들어 「의생규칙」의 시행과 의생면허시험의 실시에 따라 전통의학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계를 위한 서양의학 지식의 습득을 요구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20년대부터는 동서의학연구회와 같은 조직들이 나타나 서양의학과 한 의학을 결합하는 ‘동서 병존’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로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1930년대에 들어서는 조현영, 장기무 등이 ‘한의학부흥논쟁’을 이어가며 한 의학과 서양의학의 이론을 비교하거나 한 의학의 특수성과 임상적 장점을 인식하는 등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제도와 의료기관 설립 등 제도적 성취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¹³³⁾ 이처럼 한의들은 새로운 학문과 제도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을 근대적 학문으로 변모시키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변화된 한의학의 모습은 일상에서 그것을 접하는 일반 대중과 사전 편찬자들에게도 점차 인식되었을 것이다. 한의학부흥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조현영은 『큰사전』의 한의학 전문어를 다듬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담긴 한의학의 모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처럼 『큰사전』이 이전의 사전들과 달리 한의학을 별개의 전문 분야로 구별한 것, 한의학 어휘를 신학문의 언어로써 풀이하거나 다른 전문 분야들과 공유한 것은 시대의 요구와 그에 대응하여 한의학 스스로가 적응하고 변모해온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제강점기의 우리말 사전들에 엿보이는 한의계 내외부로부터의 ‘현대화’, 다시 말해 ‘과학화’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대의 국어사전에서 한의학 표제어를 검색해보면 『큰사전』에 비해 한의학적 개념의 퇴색이 더욱더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반 사전에 실린 전문 용어의 의미가 해당 용어가 배태된 분야의 언어를 상실한 모습이 다수 보인다.¹³⁴⁾ 이와 같은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의 한의학의 현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사전의 편찬 과정 중 한의학 전문 용어가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나, 현대 국어사전에 수록된 한의학 관련 어휘의 풀이가 현대인이 한의학을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은 현 시점에서도 추측 가능하다. 한의계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사전이 아닌, 일반 대중을 독자로 하는 사전에서 한의학 용어들을 어떻게 소개할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V. 맺음말

일제강점기는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격변

의 시기였다.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강제로 시행된 근대식 제도들과 일본을 거쳐 유입된 새로운 문물과 지식이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조선 사회의 기반을 흔들었다. 이때의 충격은 조선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켰고, 의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양의 과학과 의학이 유입되면서 한반도의 주된 의학이던 한의학 역시 그 구체적인 범주와 내용에 균열이 일어났다. 구(舊) 지식으로서의 한의학과 신(新)지식으로서의 서양의학의 충돌은 오늘날 이원화된 의료시스템을 지닌 한국의 독특한 의료 지형을 낳았으며,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당대의 우리말 어휘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보편적인 지식이 담겨 있는 조선어사전이다. 구체적으로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편찬이 진행된 주요 우리말 사전인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큰사전)』에 담긴 한의학 관련 표제어와 풀이를 살펴보고, 사전 간의 차이와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들을 고찰했다.

사전의 표제어들 다수에는 일제 주도의 제도적 변화가 풀이에 반영되어 있었다. 1910년대 초부터 총독부가 시행한 의료법규들은 의료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생겨난 어휘들은 차츰 표준적인 용어로 자리 잡아 그 안에 포함된 제도적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사전의 풀이에 반영되었다. 대표적으로 ‘의사’와 ‘의생’은 이전에 동의어로 여겨졌지만, ‘의생규칙’이 발포된 이후부터는 양의와 한의의 직종을 나누는 말로 사용되었다. 전통 의학의 입장에서 새로운 법령의 시행은 대부분 주류 의학이라는 지위의 상실과 학문 영역의 축소를 의미했으며, 그 결과 한의들은 서양의학을 학습한 ‘의사’와 차등 분류되어 사전 속에서도 ‘의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수록된 어휘가 증가하고 사전의 형식도 차츰 체계화되면서 어휘가 유래한 전문 분야의 표기 또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큰사전』에 이르러서는 한의학 관련 용어들이 의학, 약학 등에서 분리된 별도의 전문어로 표기되었다. 한의학 전문어의

133)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읽다. 서울. 아카넷. pp.120-134.

134) 이러한 양상은 비단 한의학뿐 아니라 『큰사전』에서 ‘구학문’으로 규정된 분야, 즉 전통학문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다수는 앞선 시기의 사전들을 거쳐 수용되었으며 진맥, 처방, 침 등 고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부의 어휘들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 설명되었다. 하지만 사전 속에서 한의학 전문어들은 전통적인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서양을 통해 유입된 신학문의 언어로 풀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910년대 이후 한의학이 요구 받았던 현실과, 그에 적응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근대적 학문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방식의 생존을 모색했던 당시 한의계와 사전 편찬자들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 근대적 가치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함으로써 생존 방법을 강구한 결과들을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우리말 사전에 포함된 한의학 전문어를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격변기에 기성 지식체계로서 한의학이 겪은 변화와 그 변화를 추동한 역사적 맥락 및 사회적 요인을 연결 지어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사전을 통해 한의학 분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전이 의학 혹은 한의학에 관한 전문 문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어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사회 변화의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리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오히려 전문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힘의 방향과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당대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우리말 사전은 대중의 관심과 호응 속에 널리 읽혔으며, 단순히 말들을 기록한 것을 넘어 그 안에 실린 시대정신을 다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사전에 포함된 지식과 관점은 그것이 편찬된 시대의 것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그곳에 묶여 있지 않으며, 전후의 세상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의학 연구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References

1. 강연석 외. 의사학. 경기도 고양시, 대성의학사. 2023.

2. 김민수.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 1983.

3. 김종현, 안진희. 脚氣에 대한 考察 -Beriberi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4(4). 2021.
DOI: 10.14369/jkmc.2021.34.4.137

4. 김한샘. 국어사전(말모이)의 탄생과 발전. 나라사랑. 128. 2019.

5. 都鎮羽. 東西醫學要義(再版). 京城. 漢城圖書誅式會社. 1925.

6.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6).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7. 李元世 編著, 素問學會 新編. 醫鑑重磨百病總括. 서울. 대성의학사. 2001.

8. 李允宰. 朝鮮語辭典 編纂은 어떻게 進行되는가?. 한글. 31. 1936.

9. 文世榮 著. 朝鮮語辭典. 京城. 博文書館. 1938.

10. 박영원. 일제하 조선 한의계와 한의학의 식민지적 근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 박용규.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2011.

12. 박윤재. 일제의 한의학 정책과 조선 지배. 의사학. 17(32). 2008.

13.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5.

14. 박지현. 식민지기 醫生 제도과 정책의 운영 - 『醫療關係法製例規綴』 중 의생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06. 2019.
DOI: 10.18219/ddmh.106.201906.317

15. 박훈평. 물명류 문헌에 수록된 의약 어휘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재물보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33(2). 2020.
DOI: 10.15521/jkmh.2020.33.2.037

16. 방중현. 朝鮮語辭典의 年代記. 박문. 1. 1938.

17. 백유상. 趙憲泳의 생애와 醫學思想.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32(3). 2019.
DOI: 10.14369/jkmc.2019.32.3.103

18. 서홍관. 의학용어의 변화-조선의보(1934~

- 6)와 대한의학협회지(1985)에 나타난 질병명을 중심으로. 의사학. 2(1). 1993.
19. 신규환. 해방 전후기 의료계의 의학인식과 사립병원의 발전 : 재단법인 백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사회사연구. 1. 2018. DOI: <https://doi.org/10.32365/kashm.2018.1.3>
20.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한 의학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0. 2002.
21. 안예리.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경위-‘조선사서원고’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0. 2017. DOI: 10.33641/kolex.2017..30.67
22. 여인석 외 3인. 한국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 의사학. 11(2). 2002.
23.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서울. 아카넷. pp.120-134.
24. 李德鳳. 朝鮮産植物의 朝鮮名考. 한글. 제41호. 1937.
25. 이병근.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1977.
26. 전국한과의과대학 원전학교실 편. 難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0.
27. 정인승 외 4인. 1970. “큰 사전” 편찬을 마치고. 한글. 122. 1957.
28. 조선어학회. 조선 말 큰사전(1). 서울. 을유문화사. 1947.
29. 조선어학회. 조선 말 큰사전(2). 서울. 을유문화사. 1949.
30. 朝鮮總督府 編. 朝鮮語辭典. 京城. 朝鮮總督府. 1920.
31. 趙芝薰. 趙芝薰全集4. 서울. 一志社. 1973.
32. 趙憲泳. 小異를 버리고 한글 統一案을 支持하자. 한글. 3(5). 1935.
33.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學林社. 1990.
34. 최은경. 개항 후 서양의학 도입과 ‘결핵’ 용어의 변천. 의사학. 21(2). 2012.
35.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36. 한글학회 50돌 기념사업회. 한글학회50년사. 서울. 한글학회. 1971.
37. 한글학회. (‘조선어 학회 수난’ 50돌 글모이)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서울. 한글학회. 1993.
38. 한글학회. 朝鮮語文研究優良書籍. 한글. 82. 1940.
39. 한글학회. 큰 사전(3). 서울. 을유문화사. 1950.
40. 한글학회. 큰 사전(4~6). 서울. 을유문화사. 1957.
41. 한글학회.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42. 허재영. 국어사전 편찬 연구사. 한국사전학. 13. 2009. DOI: 10.33641/kolex.2009..13.286
43. 황용주.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44. 황지혜, 김남일. 일제강점기 매약을 통해 본 한약의 체형 변화와 새로운 한약 처방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20. 33(1). DOI: 10.15521/jkmh.2020.33.1.099
45. John Considine. Adventuring in Dictionaries: New Studies in the History of Lexicography.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46. 東亞日報. 1938년 7월 13일 사설. 「조선어사전의 출래」
47.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官房總務局.
48. 皇城新聞. 1903년 8월 29일 기사. 「勸告醫學研究之必要」.
4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